

제4장 체 육

제1절 현대 포항체육의 태동

1. 포항체육의 변천

1) 광복이전(1900~1944)

우리 체육은 근대 들어 서구문화를 수용하면서 빠르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특히 일제하의 체육활동은 민족운동으로 발전, 강인한 경쟁력을 갖게 되어 한국적 체육문화의 토대를 만들게 된다.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학교가 설립되면서 체육이 활기를 띠기 시작할 때, 학교설립은 근대체육의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 지역의 경우, 1906년 연일의 광남학교(光南學校), 1907년 흥해의 의창학교(義昌學校)가 한일합방 이전에 설립되어 체육발전에 큰 몫을 했다.

구한말 어지러운 상황에서 체육운동이 국권을 되찾는 하나의 길임을 깨닫고, 민간 체육단체의 조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에 여러 학교가 설립되어 각 학교마다 체조(체육)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운동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향토적, 국가적 중요행사로서의 면모를 띠게 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진전되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 운동회는 개화운동의 추진체로서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운동을 통해 민족의식과 기상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제는 을사보호조약 체결이후 식민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학교령을 공포, 민족주의적 학교교육에 대해 탄압을 시작했다. 여기에 맞서 우리 학교는 국권회복을 위해 체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뜻에서 체육교육이 활기를 띠었다. 그러자 일경들은 조선인 체육단체나 선수들이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체포해 구속시켜 버렸고, 포항도 씨름 선수와 체육계 인사들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조선체육회가 창립된 후 첫 사업으로 이루어진 1920년의 전조선야구대회가 첫 공식경기대회였으며 이듬해에 전조선축구대회가 개최되는 등 이에 따라 정식 대회가 열렸다. 식민지가 된 후부터는 조선의 교육이 반일의 수단으로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질 낮은 식민지인 양성을 목적으로 복종을 강요했다. 3.1독립운동으로 일제의 통치가

결어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화했다. 이를 계기로 항일의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항일운동의 조직화가 시작되고, 체육 분야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민족적 요구에 따라 민족체육의 발전과 단합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이후 1920년대 말까지 청년회가 조직되어 교육, 강연, 토론과 체육회 활동 등을 통해 일제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끈끈하게 활동을 펼쳤다. 1930년대 접어들면서 조선의 체육계가 온전한 발전을 할 수 없었고, 학교체육도 군사교육화의 길로 단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의 국방체력 정책으로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민족은 운동회와 체육단체를 결성하여 민족단결을 강화하고 국권을 다시 찾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 초반 포항에서 경주지방 축구팀이 원정을 와 경기를 하였고, 1936년 경북도내 직장야구대회에 포항, 구룡포, 경주, 감포 등이 동해안 예선대회를 하였다고 한다. 또 1942년 여름에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포항, 대구, 경주, 구룡포 등 5개 팀이 출전 수영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2) 광복 이후(1945~1995)

해방과 함께 벌어진 정치·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 단위 대회인 3.1절 기념 경북도내중학춘계리그전이 1946년 대구의대운동장에서 열려 포항중 등 8개교 축구팀이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포항중, 동지중, 포항여중 등의 학교운동부가 결성되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우리 고장 체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던 포항체육회는 1947년 4월 1일에 축구인을 중심으로 결성하기에 이른다.

해방 이후 6.25사변 무렵의 포항에는 유도와 축구, 럭비, 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바다 사나이들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았다. 포항 럭비는 전국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었고, 김대청, 김대호 형제와 이호진 등이 가세한 당시 포항 MIG팀은 전국대회서 여러 차례 우승컵을 안았다. 복싱이 포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도 그 무렵이다. 일제 때 중국,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복싱선수 마쓰모토 탱크(김보현)가 해방 후 포항에 정착, 복싱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 배수인은 선수생활을 거쳐 지도자로서 포항 복싱의 맥을 지켰다. 이들 종목 외에 야구도 일찍부터 성행했던 종목으로 각종 직장대항 야구대회가 열렸고 김기윤, 신용일 등이 이때 이름을 날렸다. 포항야구의 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김시진, 진동한, 정성용, 황병일, 이강돈 등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했다. 1949년에는 영일군 보건협회장 주최 육상대회가 열렸다.

포항체육회의 발족으로 본격적인 체육 활동의 계기가 마련되자, 지역의 체육계는 사회 체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 체육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미처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6.25가 발발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체육도 전시체제에 편성되고 말았다.

1950년대 포항시체육회가 6.25전쟁의 상처로 10여 년간 그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군·관·민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951년 11월에 군관민 친선 체육대회가 대한청년단 포연단의 주최로 개최되었고, 1952년 8월 군관민 친선 씨름대회가 죽도시장 상인조합 주최로 개최되었다.

1952년부터 1956년까지는 전쟁 후 상처받은 어두운 마음에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강인한 정신력 배양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체육활동이 일어났는데, 각급 학교 운동회 및 개교기념 행사에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여 학생 및 일반인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강남지역 축구대회를 영일중 중심으로 1954년부터 동해중, 장기중, 영일중, 구룡포중 4개 학교가 일 년에 한차례씩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리그전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1954년 첫 대회는 동해중이 우승하였으며 이때는 학생보다 면민들의 응원이 더욱 열기를 더해서 면민대항 경기처럼 되었다. 특히 1953년 창단된 영일중 축구부는 1956년 가을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 청룡기축구대회에서 당시 축구의 명문 서울 중동중을 결승전에서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기와 꼭 우승하여야겠다는 투지로 경기를 하여 2:1로 우승을 하였다. 이 시기 동지상고 축구팀의 활약도 기록에 있다. 민간단체에서 주최하여 현재까지 2009년 58회 대회를 치른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광복기념 신광면민축구대회도 한몫을 하고 있다.

1955년 11월 2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설운동장 착공 기사가 실려 있다. 각종 운동 경기 때마다 체육인의 가진바 기능을 충분히 발휘치 못하는 등 시민들의 체력향상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되어 체육인들이 이에 의견타진을 거듭하여 스탠드에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완공하였다. 그 후 1957년 10월 26일 제7회 포항시민대운동회가 포항시체육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하지만 1961년 5월 12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체육회주최 군·관·민 친선야구대회의 결승전에서 친선경기의 목적과는 달리 행패로 끝을 맺어 관중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1965년 가을, 침체된 지역의 체육을 되살리자는 여론이 높아져 같은 해 11월 20일 포항체육회재건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약 6개월에 걸쳐 체육회와 산하 경기 단체의 정비, 조직 재건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66년 제10대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회장에 이종문, 전무이사에 최세환(포항수산대 탁구 코치), 사무국장 최준철(축구인)을 선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각 경기단체도 새로운 조직을 갖추게 되었는데 김규봉, 김영석, 이인국, 구영식, 강병진, 배수인, 이춘우, 김무룡, 박두만, 천장근, 이태준, 김두하, 이두우, 정인찬 등이 각 경기 단체의 임원직을 맡게 되었다.

포항체육회 정비가 한창 진행되던 1966년 5월 제4회 경북 도민체전이 경주시 황성

공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포항체육회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를 체육회 결속의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450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선수들의 숙소를 마련할 돈이 없던 당시로서는 비상대책으로 선수단을 매일 포항에서 경주까지 군용트럭으로 실어 나르기로 했다. 체육회의 정성으로, 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던 성적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다. 이는 포항체육 진흥의 촉매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1960년대 포항체육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경사가 하나 있었다. 일본 동경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지역 출신의 유도인 김정행(현 용인대학 총장)이 은메달을 얻은 것이었다. 경북에 뿌리내린 근대 스포츠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보급된 종목이 유도였다. 당시 유도계를 주름잡던 유근수가 대구에 내려와 청년들을 모아 지도를 함으로써 그를 우리나라 유도의 창시인으로 꼽으니, 그 후진들인 포항출신 동암(東菴) 문달식이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26일 대구에서 성곡(省谷) 김성근, 최영호, 신치덕, 박시기, 신도환, 오영모 등 제씨들을 규합하여 대한무술회를 창립하고, 다년간 사범진에서 초대 총무직을 겸하여 한국유도의 근간을 수립하니 그 뿌리는 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문달식은 유도 8단으로 포항 유도의 선구자였으며, 경북유도회도 금장 공로장 1호를 그에게 수여한데 이어 1983년에는 공적비를 제막하는 등 유지를 받들었다. 포항시청 유도부의 창단은 물론 포항시유도회가 주최하는 동암기 경북유도대회도 그 후진들에 의하여 포항 유도의 맥이 이어지고 있음을 자랑이라 하겠다.

1960년대 후반 및 1970년대에 이르러 각급 학교에서는 축구, 야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과 기계체조, 씨름, 육상부 등 각종 운동부를 창단하여 학생의 건강한 체력증진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각 운동부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성원은 대단하였다. 특히 핸드볼은 전 학교에 팀이 있을 정도였다.

1974년 포항체육회는 사회체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육의 저변 확대, 지도자 양성, 체육시설 확충 등에 전력을 쏟았다. 이 일을 맡았던 일선 현장의 지도자는 이춘우, 김한섭, 전석현, 김병환, 이호진 등이었다. 1974년 5월 18, 19일 양일간 포항에서 처음 열린 도민체전인 제12회 경북도민체전은 포항 체육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야말로 민과 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만들어 낸 큰 작품이었다. 대회도 성공적이었지만 선수단은 11회에 이어 다시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1980년대 들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에 따른 체육 붐은 포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포항제철과 기업체 대표들이 경기단체의 임원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과 더불어 도약을 이루는 시기였다. 또 대구가 광역시로 독립해 나가자 포항은 자연스레 경북 체육 발전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오

르게 되었다. 특히 혜성과 같이 나타난 천인태(포항수고)는 한국신기록을 대회 때 마다 갈아 치우며 조오련 이후 우리나라 수영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1985년 5월 제 14회 전국소년체전 포함개최는 체육사의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1995년 지방중소도시 최초로 열린 제76회 전국체전을 열 수 있는 자신감을 포함체육계에 심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포항시체육회

세계 굴지의 철강도시인 동시에 최첨단 과학도시, 선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52만 포항시민의 체육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포항시체육회다.

해방과 함께 벌어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고장 체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던 포항체육회를 발족시키는 데는 특히 축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축구는 일반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인기 종목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 저변 인구가 많고, 조직을 결정하기에도 수월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1945년 10월 포항 지역에 살던 김희수(휘문고보), 김홍동(보성전문), 김복수(세브란스의 전), 김우득(일본 중앙대), 김재호(배재고보), 장유생(일본 구주 풍곡중), 김상호(전소방서장) 등이 중심이 되어 첫 공식적인 체육조직인 ‘포항축구단’을 결성하였다. 이는 체육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톡톡히 해서, 1947년 4월 1일 포항체육회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초대 회장에는 김병준(金丙俊)이 뽑혔다. 첫 공식사업으로 그해 8월 15일 광복 2주년을 맞이하여 축구를 중심으로 제1회 남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영흥 초등학교 건너 염전을 일구던 곳으로 최초 포항공설운동장 자리였다. 그러나 미처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6.25가 발발해 10여 년간 그 역할을 못하고 해체된 상태에서 군·관·민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1950년대 후반 원로 체육인 박두만을 중심으로 체육인들이 민선시장 김병윤, 문달식 등을 체육회 회장으로 추대해 지역체육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포항체육사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 유도인 동암(東菴) 문달식(文達植 1917~1978)선생의 자취는 지금도 포항시 체육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된 시민 한 마음체육대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60년대 들어 포항에는 어느 지역보다 빨리 종목별 경기단체가 조직돼 체계적인 선수양성과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 포항체육은 결정적인 도약기를 맞아, 1974년 처음으로 제12회 경북도민 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지방 중소도시가 체육계 전반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 포항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대구를 제치고 경북도민체전에

서 7연패의 위업을 달성하기에 이른다.

1985년 제1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지방중소도시로서는 최초로 유치하고, 1984년 6월 실내체육관과 1985년 5월 포항종합운동장(제1종 육상경기장)을 준공하고, 포항실내수영장 및 실내사격장이 문을 열었다. 포항시체육회도 1985년 6월에 시민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 지역의 체육본거지에 틀을 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체육회와 학교운동부, 각 연맹 지도자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도민체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민선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포항체육회 임원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97년 제35회 도민체전(경주)에서 7년 만에 우승을 탈환했다. 2001년 제39회 대회까지 정상 수성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무난히 5연패를 하였다.

2006년 체육인 출신 박승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역대 어느 시장보다 강력한 의지로 스포츠도시 포항 건설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체육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국대회 스포츠 행사를 유치했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 시민의 팀 프로축구 활성화로 체육 붐을 조성하고, 도민체전 우승과 정상유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1) 연혁

- 1946. 7. 포항시체육회 창립(제1대 김병준 회장 취임)
- 1946. 8. 제2대 문달식 회장 취임
- 1947. 8. 15. 제1회 남선 체육대회
- 1949. 제3회 최1기봉 회장 취임
- 1955. 제4대 최준봉 회장 취임
- 1959. 제5대 김병운 회장 취임, 시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1960~1965 제6회 문달식, 제7대 이상일, 제8대 최경호, 제9대 이상일 회장 취임
- 1965. 11. 20 포항체육회재건위원회 결성
- 1966. 제10대 집행부 구성(이종문 회장 취임)
- 1970. 4. 사무국 시청에서 문화원으로 이전
- 1973. 제1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처음 종합우승
- 1974. 5. 포항시 남구 상도동 공설운동장 준공
- 1974. 5. 18일-19일 제1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처음 개최(종합우승)
- 1975. 10. 제20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송도 등)
- 1980. 6. 제1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 7연패 달성

- 1981. 8. 체육회 사무국 공설운동장으로 이전
- 1983. 6. 4 체육대회 사무국 문화원으로 이전
- 1984. 6. 4 포항실내체육관 준공
- 1985. 5. 21 포항 실내 수영장, 실내 사격장 준공
- 1985. 5. 22~26 제1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 1985. 5. 28. 제30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송도동)
- 1985. 6. 17. 체육회 사무국 시민운동장으로 이전
- 1985. 8. 10. 인덕구장 준공
- 1986. 5. 5~9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분산 개최
(사격, 축구, 체조경기 운영)
- 1987. 5. 4.~6. 제2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
- 1987. 5. 21~25 제16회 전국소년체전 전국분산 개최
(수영, 사격, 축구, 체조 등 5종목)
- 1988. 2. 포항궁도장 준공
- 1990. 5. 28~31 제28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 1991. 3. 31. 시민테니스장 준공
- 1991. 12. 6. 포항 시민볼링장 준공
- 1993. 10. 22. 제38회시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 : 효곡동)
통합 전 마지막 대회
- 1994. 10. 7. 제39회 시민체육대회 취소(극심한 추위로 대회 취소를 결정)
- 1995. 2. 14. 통합 포항시체육회 조직 구성(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
- 1995. 10. 2~8 제7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방 중소도시 최초 개최)
- 1996. 5. 25~28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 1996. 10. 23. 시·군 통합 제1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 : 흥해읍)
- 1997. 10. 2. 통합 제2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 : 두호동)
- 1999. 5. 18~21 제3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 2001. 5. 21. 제3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패 달성
- 2007. 5. 14.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우승
- 2008. 10. 25. 제9회 포항시민체육대회 개최(종합우승 : 용흥동)
- 2009. 5. 15. 제4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우승
- 2009. 10. 체육회관 개관 및 사무국 체육회관으로 이전

2) 역대 회장

대 수	성 명	직위(민·관)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1	김 병 준	민	1946년	1947년	
2	문 달 식	관	1946년	1947년	
3	최 기 봉	"	1949년	1950년	6.25로 활동정지
4	최 준 봉	"	1955년		월일 불분명
5	김 병 윤	"	1959년		"
6	문 달 식	"	1960년		"
7	이 상 일	민	1960년		"
8	최 경 호	"	1960년		"
9	이 상 일	"	1960년		"
10	이 종 문	"	1965년 11월 20일	1966년	조직재정비
11	배 수 강	포항시장(관)	1967년 11월 5일	1969년 8월 9일	체육회 업무안정
12	김 영 만	"	1969년 8월 9일	1970년 9월 5일	
13	이 상 호	"	1970년 9월 5일	1971년 8월 21일	
14	김 인 휴	"	1971년 8월 21일	1973년 11월 3일	
15	홍 순 호	"	1973년 11월 3일	1975년 9월 3일	
16	이 승 희	"	1975년 9월 3일	1980년 4월 7일	
17	황 귀 암	"	1980년 4월 7일	1981년 7월 1일	
18	정 충 검	"	1981년 7월 1일	1983년 4월 14일	
19	황 윤 기	"	1983년 4월 14일	1983년 12월 27일	
20	우 일 현	포항시장(관)	1983년 12월 27일	1986년 3월 8일	
21	이 동 진	"	1986년 3월 8일	1988년 1월 20일	
22	오 헌 덕	"	1988년 1월 20일	1989년 9월 15일	
23	고 정 환	"	1989년 9월 15일	1995년 1월 10일	
24	김 광 원	"	1991년 1월 10일	1991년 7월 15일	
25	양 종 석	"	1991년 7월 15일	1993년 3월 16일	
26	이 종 주	"	1993년 3월 16일	1994년 3월 9일	
27	김 재 영	"	1994년 3월 9일	1994년 10월 1일	
28	김 의 환	"	1994년 10월 1일	1995년 7월 1일	
29	박 기 환	포항시장(민)	1995년 7월 1일	1998년 6월 30일	민선
30	정 장 식	"	1998년 7월 1일	2006년 6월 30일	"
31	박 승 호	"	2006년 7월 1일	현 재	"

3) 역대 상임부회장 및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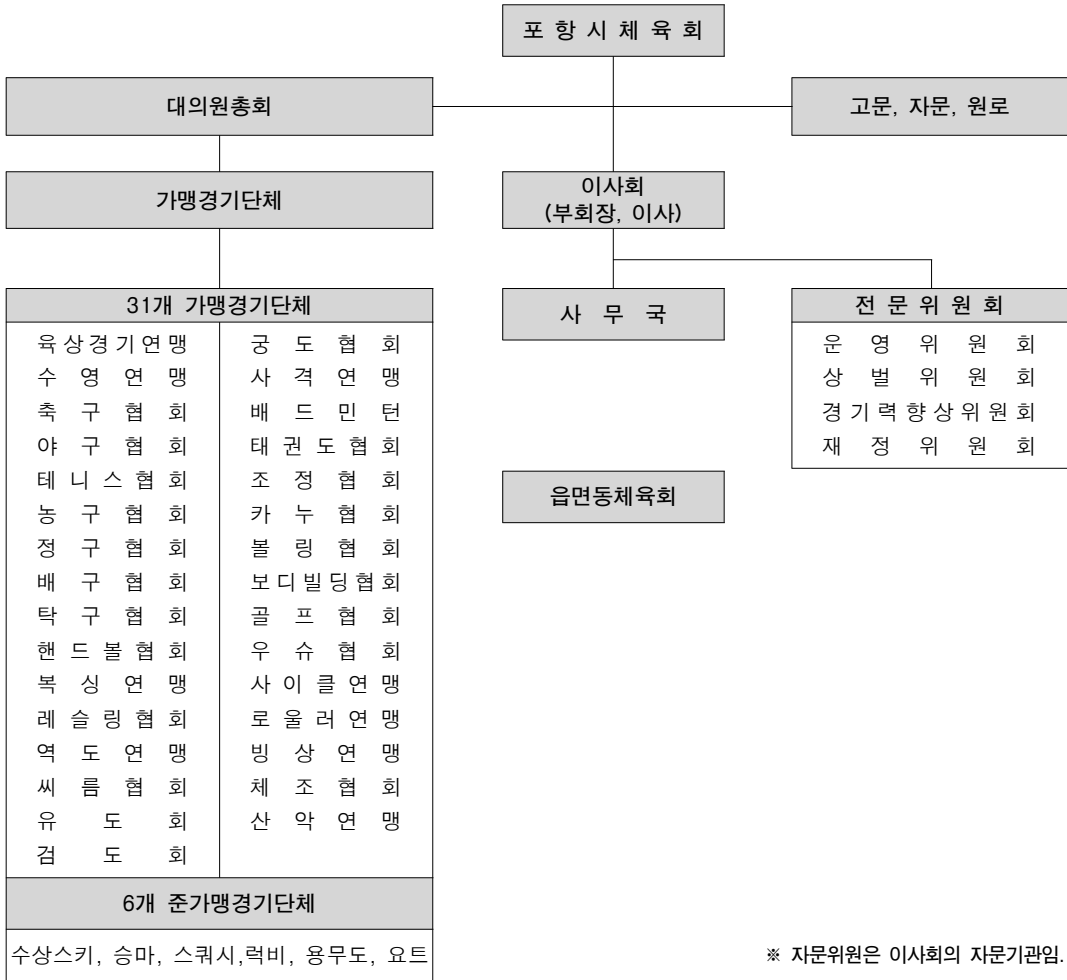
(1) 상임부회장

대 수	성 명	근 무 처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1	황 영 수		1967	1970	월일 불분명 수 석
2	신 용 일	부산일보 포항지사	1970. 9. 5	1981. 6. 29	
3	김 박 문	서진식품 회장	1981. 6. 29	1989. 8. 29	
4	오 일 수	서민서실 대표	1989. 8. 29	1989. 10. 20	
5	이 용 득	포항시의회 의장	1990. 2. 16	1994. 10. 27	
6	양 용 주	"	1995. 3. 16	1996. 10. 16	
7	이 태 준	포항1대학 교수	1997. 1. 24	1999. 12. 31	
8	이 경 민	건도산업 대표	2001. 1	2009. 1. 31	
9	문 충 국	사랑병원상임이사	2009. 2. 3	현 재	

(2) 사무국장

대 수	성 명	근 무 처	재 임 기 간		비 고
			부 터	까 지	
1	김 상 호		1964	1959	
2	김 진 일		1960	1964	
3	최 준 철	축 구 인	1965	1966	
4	김 규 봉	로타리식당 대표	1970. 9. 5	1973. 12. 3	
5	김 무 룡	포항호텔 대표	1973. 12. 3	1981. 6. 29	
6	이 태 준	포항 전문대학 교수	1981. 6. 29	1986. 7. 13	
7	배 수 인	포항시복싱연맹 부회장	1986. 7. 13	1996. 9. 2	
8	김 동 호	동인교육재단 사무국장	1996. 10. 16	2005. 1. 13	
9	정 용 달	천명운수 대표	2005. 1. 14	2009. 1. 31	
10	조 현 진	광명전기(주) 포항지사장	2009. 2. 3	현 재	

4) 조직



5) 2009년도 임원 현황

회 장	박승호
상임부회장	문충국
부 회 장	이동욱, 이상구, 최영우, 장성환, 안상찬, 최인수, 권기덕, 김영국, 박봉덕, 박승대, 이무희, 한명희, 우주환, 김영석, 정용달, 이철구
이 사	조현진, 박문태, 정해종, 황병한, 안중환, 김재홍, 이복성, 박재호, 이기만, 김재규, 최상원, 김중기, 엄대영, 강재곤, 임성문, 김광석, 윤광수, 예병욱, 정동만, 김수인, 이영우, 이재화, 김낙경, 박영기, 민형규, 김윤희, 김종호, 전기찬, 임동민, 김언주, 장철성, 김은주, 박갑숙, 이동근, 정영화, 전광수
감 사	황관조, 최용달

6) 역대공로상 수상자 현황

년도	수상자	년도	수상자
1972	이종린, 김박문, 윤상춘	1991	박충강, 이의동
1973	김규봉, 이종득, 김학조, 한경호, 공효용, 김두하	1992	이태진, 정학수, 정인찬
1974	김 영, 김현호, 김기영, 김한섭, 최정석	1993	김명수
1975	신용일, 김중기, 김윤기, 이학희	1994	한해룡, 이민구
1976	이상인, 신병부, 김대정	1995	김정요, 정주영
1977	하태환, 김현호	1996	노원조
1978	황대봉, 서종열	1997	박만도
1979	이상목	1998	김문목, 최상준, 강석호, 김재호
1980	오일용	1999	이도희
1981	김무룡·박두만	2000	최상하
1982	이상백	2001	최인수, 최종락
1983	오삼달, 최상규	2002	정필만, 박봉덕
1984	“시상업음”	2003	노상수, 이정길, 성문환, 박정우
1985	구태회, 이갑룡	2004	강재곤, 이무희, 한명희, 김광석
1986	이태준, 김규련, 한익동, 박희택	2005	김동호
1987	박득표, 김규만, 박재열, 윤종구, 문충국, 김성조	2006	김덕균, 최영만
1988	주성원, 이경민	2007	하용섭, 조현진, 이성우
1989	김성동, 이치형, 차동해	2008	이상호, 이지곤, 한도균
1990	조석규, 이기적, 김형시		

제2절 포항체육의 발전과 중흥

1. 시·군 통합 후 포항체육(1995년 이후)

엘리트체육 중심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고, 체육을 정부차원에서 점차 민간차원으로 이양하고자 했다. ‘국민체육진흥정책 5개년 계획(1993~1997)’이 수립돼 정책이 펴지고, 2년 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군이 통합되었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5년 1월 1일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체육의 전반에 걸쳐 변화와 통합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95년 7월 1일 시민이 뽑은 민선시장이 행정의 수장으로 취임하고, 시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제가 활짝 문을 열었다. 그 해 10월 제76회 전국체전을 개최해 1985년 전국소년체전 개최 10년 만에 지방 중소도시 첫 전국체전 성공 개최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포항시와 영일군 통합을 자축하는 행사도 되었다.

1996년에 포항시체육회는 기관·단체의 대표 및 체육인으로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맹지원금 확보와 훈련장 여건 확충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1997년부터 도민체전 종합우승 5연패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체육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포항체육은 경북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중 9개 단체가 포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포항시체육회 산하에 현재 31개 경기가맹단체와 6개 준 가맹 경기단체로 구성되어 매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포항은 축구의 도시로 1973년 포항제철 실업축구단이 창단되면서 시작된 포항의 축구사는 1984년 시민구단 포항 프로축구(포항아톰즈-포항스틸러스)의 창단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였다.

1990년 국내 최초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전국 최대 규모 국제규격 연습장을 다수 보유하고, 2000년에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클럽하우스를 건립, 축구도시 포항의 면모를 더욱 일신했다.

포항의 아마추어 축구는 2001년 FA컵에 나서 한국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아마추어 팀이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2001년 생활체육 전국대회 우승, 2002년 FA본선진출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었다.

2. 꿈나무 육성과 학교체육

포항교육청은 체육교육의 내실화, 학교운동부 활성화, 평생체육의 기반조성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의 효율적인 관리, 종목별 연계육성, 신인 및 우수선수 발굴 등에 전력을 기울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초등은 학생 1천명, 중·고교는 600명 이상일 경우 반드시 팀 경기 1종목을 선정, 육성하는 등 학교운동부 창단을 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려 선수 저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육상의 경우 교육장기타기 육상대회, 시장기 및 교육장배 초등학교마라톤대회 등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수영, 체조의 경우 상설교실을 통해 연중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는 총 20개 종목에서 초 17개교 22팀, 중 19개교 27팀, 고 16개교 23팀으로 도내 최고 많은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가 연계돼 선수를 발굴·육성하는 진로연계 지도와 우리 지역 특성화 종목 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포항교육청은 교육감기 마라톤대회, 경북학생체육대회 등에 최근 3연속 종합우승을 했고, 교육감기 각종 경기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단위대회 등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 포항의 초·중학교 선수들은 2008년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8, 은9, 동9개로 총26개의 메달을 땀으며, 고교생 선수들은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에서 경북이 종합 4위에 오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주민, 지역사회, 동창회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공감대가 형성되고,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3. 각급 연맹 및 협회 활동

1) 포항육상연맹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초이며 기본이다. 우리 지역에서는 1947년 경북중등육상경기대회 여중부에 포항여중이 참가하였고, 1949년 제2회 대구~영천 역전경주에서 대륜등과 함께 동지상고가 출전하였다.

1960년대부터 도민체전 등에서 우리지역 선수들의 입상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상도중, 세명고, 중앙고, 대흥중 등이 집중 육성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고등부 육성팀의 부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1994년 시청팀 창단과 2004년 두호고의 창단으로 각종 대회에서 종합성적을 거양하는데 한숨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이 배출한 국가대표 선수로는 1980년대에는 단거리 박경식, 중장거리 장전수, 1990년대에는 단거리 강용, 중장거리 김순형, 2000년대 10종 경기 김건우, 현재 국가대표 대흥초·중 출신 중거리 김재열(한체대 2) 선수 등이 활약하였거나 하고 있다. 연맹은 90년 황인찬 회장부터, 이두우, 이도희 회장에 이어 현 하용섭 회장(전무 정대관)이 이끌고 있다.

2) 포항수영연맹

1942년 포항송도해수욕장에서 포항 대구, 경주, 구룡포 등 5개 팀이 경기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1970년대 포항중 수영장장과 구룡포초, 흥해초 등 수영장건립으로 선수들의 훈련요람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포항중, 대도중, 포항여중, 송도여중, 유성여고, 포항수고 등의 육성팀이 있었다.

포항 수영은 천인태, 김성호 등이 활약하면서 전국대회서 금메달을 따기 시작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천인태는 고교시절 한국 신기록을 수차례 경신했으며, 1985년도에 창단된 포항수고 수구부는 전국체전서 우승은 물론 92년도는 전국대회 4번이나 제패하는 등 전국 최고팀으로 부상하였고, 이병준, 박인호, 백덕기·백원기 형제 등 전 현 국가대표 선수가 대거 배출되었다. 특히 베이징 이시안 게임에 장지영, 박석범이 참가 동메달을 땀다. 포항중 출신 이승협은 수구선수 및 경영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1987년 광주전국체전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다.

그 후 90년대 이후 수영장 폐쇄 등과 함께 학교 운동부 팀들이 점차 해체되고, 초등선수들의 운동기피 등 원인으로 포항 수영은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맹은 초대 회장 박만도, 김영동, 현 김병오 회장(전무 박인호)이 이끌어 오고 있다.

3) 포항축구협회

1930년대 초반 경주지방 축구팀이 포항에서 교류 경기를 가졌고, 1946년 포항체육회를 발족시키는 데 축구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946년 3.1절 기념 경북도내중학 춘계리그전에 포항중 등 10개교 축구팀이 참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56년 영일중 축구팀은 제54회 전국 청룡기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기업을 토하였고, 1950년대 후반 창단된 동지상고 축구부가 면면을 이어왔다.

포항의 현대 축구사는 1984년 시민구단 포항 프로축구(포항아톰즈-포항스틸러스)의 창단으로 비약적 발전을 맞게 되었다. 포항의 아마추어 축구는 2001년 FA컵에 나서 한국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아마추어 팀이 전국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학교운동부로는 포철동초, 문덕초, 포철중, 포철공고 축구팀과 2000년부터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창단된 여자팀 동해초, 함도중, 상대초, 포항여전자고 등

이 있다. 남녀축구팀들은 전국의 강호로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2009년에 들어 포항여전자고는 각종대회 우승으로 사카 퀴에 등극하였고, 포항은 그야말로 환상의 축구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국축구의 메카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김청용, 김재호, 정팔만, 강석호, 김순견 회장(전무 이상훈)이 협회를 이끌어 오고 있다.

4) 포항야구협회

1936년10월 경북도내 직장야구대회에 포항, 구룡포, 경주, 감포 등에도 직장팀이 있어 동해안 예선대회를 치루고 대구 본 대회에 출전하였다고 한다.

해방 후 6.25동란 전후 일찍부터 성행했던 종목으로, 각종 직장대항 야구대회가 열렸고, 1961년5월12일자 동아일보는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회주최 「군관민친선 야구대회」를 보도한 기사도 있다.

포항야구의 맥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김시진, 진동한, 정성용, 황병일, 이강돈 등 걸출한 스타들을 배출했고, 1981년도에 창단한 포철공고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권혁, 강민호와 현재 프로야구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준석 등을 배출했다. 1981년8월 경북야구협회가 포항에 자리 잡았으며, 육성팀은 대해초, 포항중, 포철중, 포철공고로 최근 각종대회 출전 성적은 2008년 대통령배전국중학야구대회 포철중 우승, 2009년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 포철공고 4강,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중학야구선수권 포철중 4강이며,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2007~8년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전망으로는 2011년 포항야구장이 완공하면 프로야구 삼성 홈경기를 유치하여 포항시민에게 새로운 스포츠문화를 선보일 것이다. 현재 이성우 회장(전무 박세희)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5) 포항테니스협회

1960년대 포항의 상류 지식인들 중심으로 테니스 동호인들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 초반에 포스코 관련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동호회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협회에 등록된 회원수가 5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하였다. 경북협회장기 시·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3연패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엘리트 테니스는 1980년대 후반에 포항제철 여자 실업팀이 전국 정상권에 있었고, 선수출신 특기교사들이 포항에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부초 졸업생들로 1989년 포항중 테니스부가 창단되었고, 이들이 포항고에 진학하면서 1992년에 포항고 테니스부가 창단되어 전국체전 경북대표로 선발되었고, 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국제주니어테니스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테니스 명문 학교로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초등학교

와 진로연계가 되지 않아 현재는 문을 닫았다. 시설적 인프라는 종합운동장 내 시민 테니스장과 포항실내테니스장 등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현재 김영택 회장(전무 이재철)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6) 포항농구협회

1954년 제35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포항팀이 최초 입상한 대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지여중 농구부가 3위에 입상하였다. 이후 동지여중은 제36회, 제37회 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랐으나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여 기염을 토하였으며, 포항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 후 1963년 제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포항고 농구팀이 3위를 한 기록이 있으며, 그 후로는 농구 육성팀이 없어 급조한 포항의 각 급 학교들이 번갈아 도민체전에 참가하였다.

1997년 박봉덕 협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중·고 협회장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였고, 대동고와 세명고가 고등부 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여고부는 영일고가 10여 년간 포항대표로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현재 박성대 회장(전무 김영원)이 2005년도에 취임하였으며, 2009년 도민체전에서 남고부는 각 고등학교 우수선수로 구성된 연합팀, 여고부는 동지여고가 출전하였다.

남일반부는 사회동아리 3팀에서 뽑은 선수와 대학 동아리 출신선수로 구성하여 출전하여 도민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을 하였다. 아마추어 팀의 한계는 당해연도에 학교운동부 육성팀과 대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들쭉날쭉 한다.

7) 포항정구협회

포항정구의 역사는 1956년경 김병준, 김두수, 오봉도, 이판봉, 박진일, 권중순, 문영준, 최종호, 김두하 등 10여명으로 포항시정구협회가 발족되었다. 초대회장에는 김병준 씨가 선출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해병포항기지사령부에서 정구부 창설과 1962년도엔 포항정구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선수를 영입하여 각종대회를 석권하였다. 같은 해 포항고가 처음 창단되었고, 1965년도 이후 동지상고가 창단되었다. 영남지구정구대회를 개최하여 포항정구협회 명맥을 이었으며, 포항고 출신을 주축으로 정우회를 구성했다. 1969년부터 예전의 장년부 동호인들도 참여하여 김현호(교장) 회장을 추대하였고, 10여 년간 정구협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1990년경 본 협회와 대도동 장년부, 동해어망팀이 통합함으로써 포항시정구협회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구성원은 김문목, 송세인, 전정치, 김종우, 특히 전무를 역임한 김영길 전 포항시의원과 이성용, 김우달, 정인찬의 공이 크다고 하겠다.

1998년 가을 현재의 해맞이공원 내 나이트시설을 겸비한 6면의 완벽한 정구장을 만들었으며, 당시의 회장 김문목 전 회장이 많은 수고를 하였고, 이성용, 김영문, 김영길, 김세현에 이어 차정학 회장(전무 이희종)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8) 포항배구협회

1963년 제1회 경북도민체전에서 포항여고가 3위를 한 기록이 최초이며, 1960년대 후반 도민 체전팀으로 협성공민학교, 동지상고, 포항수고, 포항실전 등이 참가하여 여러 차례 입상하여 꾸준한 성적을 내었다.

배구협회는 1973년에 창립하여, 1992년 노원조회장과 1999년 취임한 12대 최종락 회장이 4회 연임하면서 배구 발전 기금조성 등 협회를 알차게 운영하여 포항배구의 기반을 다졌다. 그동안 각종대회 개최는 물론 도민체전에서 항상 정상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 최종락 회장(전무 신회국)이 다시 협회를 맡아 배구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고 있다.

현재 육성팀으로는 포항여고가 1991년 창단되어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팀이 되었고, 특히 2000년 임유진이 유스대표, 2001년에는 임유진, 홍미선이 주니어 대표로 선발되었고 나중 국가대표로도 활동하였다. 오천초는 1995년 창단되었고, 포항 동부초는 2001년 창단하여 전국소년체전 준우승 등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포항여중은 함도중 선수들을 2000년에 인수 창단하여 전국소년체전 입상과 2009년에는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팀 전력이 전국 정상권에 올라 있다.

9) 포항탁구협회

1965년 제3회 도민체육대회에서 포항중 선수들이 최초 3위 입상한 실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포항고가 입상한 실적이 있다.

포항탁구협회는 80년대 초반 정명중 초대회장과 20명 이사로 출범하였고, 1980년부터 협회장기, 1985년부터는 포항시장기 탁구대회를 개최하여 탁구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포항의 탁구동호인들의 기능향상과 탁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7년 제33회 전국종별탁구대회가 개최되어 탁구인들이 성원을 하였다. 동아리로 출발한 장량초 탁구팀이 2003년도에 창단되어 2005년 전국소체 우승이라는 괄목한 성장을 하였고, 2005년 창단한 대흥중은 전국강호로 등장하여 각종 전국대회 우승을 수차례 하고 있다, 2007년에는 그 여세를 몰아 제53회 전국 종별 탁구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하여 봄을 조성하였다.

2008년에는 어렵게 두호고에 탁구부를 창단하였고, 2009년에는 대흥중의 탁구 신동 김동현이 어린나이에 성인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포항이 학원탁구의 중심메카

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9년 현 제13대 전을수 회장(전무 이상원)과 임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탁구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10) 포항핸드볼협회

1947년에 경북에 첫 선을 보였고, 1948년 송구보급강습회에서 체육과생과 국민학교 체육 주임간 경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보급되어 전 학교에 송구 열기와 붐이 일어났다. 1963년 11인제에서 7인제 경기로 규칙이 바뀌었고, 70년대 초반 지역의 초등학교 마다 송구팀이 있어 대회를 자주 개최하였다. 당시 중, 고부는 포항중, 포항고가 지역을 대표하였고, 1980년대 초 신흥초, 향도초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1984년을 끝으로 지역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당시 초등 교사 박동명, 장병조의 열의가 지역 핸드볼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 1983년 중앙고 이재화 교사의 부임으로 동아리 팀이 조직되었고, 도민체전 출전은 물론 졸업 후에도 일반부로 출전하여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비인기종목임에도 지역출신 이인환, 이문환, 정학수, 강근준, 정영생, 정용달 등이 회장을 역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정용달 회장은 이후 체육회사무국장으로 체육실무전반을 맡기도 하였다. 2006년 경기인 문충도 현 회장(전무 이재화)과 핸드볼 동우회 중심으로 임원이 구성되어 박갑숙 아틀란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등을 지도자로 영입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 도민체전 종합우승 등 항상 상위권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11) 포항복싱연맹

일제 때 중국, 일본까지 이름이 알려졌던 복싱선수 김보현이 해방 후 포항에 정착하여 복싱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 배수인은 선수생활을 거쳐 지도자로서 포항 복싱의 맥을 이었다.

우리 지역에는 1980년대 초반 동양챔피언 구상모가 포항에 정착하면서 후진들을 육성하다가 그의 제자 배상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체육관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94년에는 초대 전무인 최영수가 종합운동장 앞에서 도장을 열어 후진들을 키우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 경북의 각 시에서는 복싱부를 육성하여 전국대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데 우리지역은 팀이 없어 도민체전 등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포항에서도 1992년 김성수를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여 연맹을 결성하였고, 이어 권영철 회장이 2004년까지 11년간 회장으로 있으면서 복싱연맹의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2005년부터 현재 장두명(전무 정영화)이 취임하여 흥해공고, 창포

중 동아리팀을 학교운동부 육성팀으로 창단 노력중이며, 2006년에 포항대학에 팀이 창단되어 도민체전 상위권 도약은 물론 전국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12) 포항레슬링협회

1995년 2월 오천중 레슬링부가 김양훈(영남대 선수출신) 교사를 감독으로 창단하면서 그해 5월에 박영진 회장이 취임하여 태동되었다. 1998년 4월에 오천고가 창단을 하여 진로연계가 되었으며, 1999년 이상윤, 2001년 김석훈, 2005년 조명호 회장에 이어 2009년 정기철 회장(전무 김양훈)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협회를 이끌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레슬링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기에 오늘날의 레슬링 명문 오천중·고가 탄생되었고, 지역사회와 후원회도 큰 몫을 하였다. 오천중·고는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서 수많은 메달을 땀고,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여 올림픽출전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였다. 졸업생들이 일반부로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우승을 맡아 놓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적은 오천중에서 많은 선수들이 발굴 육성되어 오천고로 진학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

향토를 빛낸 선수로는 제15회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리스트 이세형, 제29회 중국 베이징올림픽 대표선수 김재강, 2009 아시아선수권 은메달 리스트 남경진 등이다.

13) 포항역도연맹

포항역도는 1974년 역도선수 출신 김원섭(체육교사)이 포항고에 부임하여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하였고 이듬해부터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었다. 그 후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다가 폐지되었다.

포항역도연맹은 1980년 김광수 초대회장을 중심으로 창립되어 1982년 20회 도민체전에서 1위를 하였고, 2008년 도민체전 종목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1985년에는 제14회 전국소체 역도대회가 종합운동장 역도장에서 열렸다. 1985~1986년도에는 미스터 영남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1990년대 초반 대도중에 역도부가 창단되어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기 시작하여 1996년에 포항수고 및 창포중에 남녀 역도부를 창단하였으며, 특히 포항수고 김동욱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17개나 갈아치우면서 역도계의 큰 별로 기대를 모았고, 포항해양과학교(전 포항수고)는 그 외에도 많은 우수선수들을 배출시켜 전국 역도 명문교로 부각되어 많은 선수들이 대학, 실업팀에서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역도는 선수 발굴이 힘이 들어 저변확대에 문제가 있으며 우수선수들 중심으로 명

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 학교운동부 육성교는 대도중, 창포중, 환호여중, 포항해양과학고 등이며, 이상근 회장(전무 김일근)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14) 포항씨름협회

씨름은 우리 민족의 고유 운동으로 경북지방이 그 뿌리로 시민 전체가 좋아하여 광복 후 학교운동회 등에 빠지지 않고 행해지는 종목이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는 배출하지 못했으나 1952년부터 1955년까지 경주 서라벌씨름대회 등에서 동지상고가 4년 연속 우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65~1966년 도민체전 일반부에서 영일군팀이 연속해서 3위를 차지하여 전통적으로 강한 선산, 달성, 의성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1970년대 초반 전국 최고의 기술 씨름 달인 백송기 장사가 포항중 교사로 부임하면서 팀을 지도하여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하여 실업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1950~1960년대 활약한 선수로는 박원식, 박두진, 황일석, 노상욱, 박영락 등이며, 씨름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학교 운동부는 1999~2000년에 양학초와 양학중에 창단을 하였으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없어지고 말았다. 그 후 도민체전 때마다 급조해서 선수를 구성하니 성적이 고르지 못했다.

2006~2007년 대통령배전국씨름왕대회가 연속적으로 포항에서 개최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 포항시에 씨름팀 창단을 희망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무산되었다. 현재 한승훈 회장(전무 이동운)이 협회를 맡고 있다.

15) 포항유도회

포항의 유도는 '경북유도 80년사'에 한 획을 그은 동암선생의 유지를 이어 받아 포항과 경북을 넘어 바야흐로 한국유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포항출신이자 유니버시아드대회 은메달리스트인 김정행 용인대총장이 대한유도회장을 맡고 있는데다 포항시청유도부도 올림픽 및 국제대회 대표선수의 배출 근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에 유도가 본격 보급된 시점은 1961년 3월 구태회 9단(경북 최고단자)이 동암선생과 함께 '포항무도관'을 개관한 이후인데 김총장은 물론 주요 협회임원이 거의 그 수련생들이다. 또 지난 1968년 2번째 개관한 '영남유도관' 권무열 관장도 역시 그 맥을 이었다. 지난 1981년 협회가 통합 출범한 이후 박용, 오철상, 김영웅, 이경민(경북 유도회장 역임), 한명희, 권원수 회장(전무 전광수)이 회를 이끌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매년 8월 동암 문달식선생추모 겸 포항시회장배 경북개인유도선수권대회를 30여회 가까이 개최했으며, 전국춘·추계연맹대회, 전국실업연맹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해왔다.

유도부는 동지중, 동지여중, 동지고, 포항시청 남·여부이고 모두 전국의 강호로 수 없이 우승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대표선수로 국제대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포항유도회는 숙원사업으로 유도전용 체육관인 포항유도인회관이 건립되어 유도 도시의 명성에 걸 맞는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16) 포항검도회

포항의 검도 활성화 정도는 수천여명에 이르는 동호인과 전국대회 입상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 상위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대 회장으로 초대 이상인 회장이 1984년부터 10여년간 활동했고, 김하석, 박병모, 김재동, 이수환, 김태균, 안수철, 현 김진만 회장(전무 원상혁)이 역임하면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토대는 1960년대 후반 이상인 7단(작고)과 김영운 6단(작고)의 공헌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 선수들은 매년 경북 대표팀의 주축으로 지난 1987년 68회 전국체전 입상을 시작으로 2000년 전국체전 고등부 단체 우승, 1974년 전국소체 은메달, 2003년, 2008년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등 현재까지 각종 전국단위대회에서 대동중·고팀이 전국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는 8곳의 시설검도장과 대동중·고 검도부, 포항공대와 선린대 등 대학 동아리와 직장동호회 등이 활동 중이다. 검도회는 주요사업으로 2년 마다 포항시 검도왕 대회를 열어 유망주를 발굴해왔으며, ‘정통 검도’의 맥을 잇기 위해 초등학교 검도부를 창단해 연계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7) 포항궁도협회

1930년 6월 이규한, 박윤여, 김규현 등이 송도송림 내 연합동호정을 설립하여, 1933년 2월에 제1회 영남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하였고, 1934년 우현동 연비산록에 정상오 등이 동호정을 관덕정으로 개칭하고 옮겼다.

1953년 1월 발간된 경북체육 창간호에는 포항에는 월호정, 흥해 흥무정 등에서 동호인들이 활약하였다고 기록돼 있다. 1958년 10월에 송도송림에 습사정을 건립 송학정이라 개칭하고, 1971년 학산동에 송학정 본관을 준공하였고, 이종린, 김기영, 정정수 회장이 협회를 이끌었다. 1981년 7월 대구시가 분리되면서 포항에는 송학정, 흥해 권무정, 구룡포 서악정 등이 있었고, 1988년 3월에 종합운동장 내에 궁도장을 준공하고 도내 남녀친선궁도대회를 개최하였다. 1989년에 송호정이 등록되어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1990년대 김처수, 양용주, 김형시, 정재황, 박동진회장이 협회를 이끌었고, 1995년에는 전국체육대회도 치루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 포항시 궁

도협회를 결성하고 초대 회장에 방해용이 취임했다. 2000년대 들어서 안익수, 정재학, 김형시(전무 강대선)가 협회를 이끌었으며, 도민체전 우승은 물론이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명궁에 등록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18) 포항사격협회

1981년 대구시 독립으로 경북연맹을 포항시로 옮기면서 1981년 8월 초대 정헌영 회장이 취임했고, 포항협회 업무도 같이 수행했다. 1983년 이용득 회장 취임 후 광명 사격팀을 창단했고, 1984년 주성원회장이 취임해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종합우승을 하였고, 85년5월에 포항실내사격장을 준공하였다.

1985~1987년 전국소체, 1990~1995년까지 회장기중고사격대회도 치렀다. 그 후 1995~1996년, 2006~2007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하였고, 현재 육성팀으로는 대도중, 상도중, 송도중, 동지여중, 포항고, 동지여고, 포항대학팀이 있으며, 한때 동해중, 용흥중이 전국 단위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

전국체전 입상실적을 보면 포항고가 단체전 우승을 많이 하였고, 개인은 최주호 등이 있으며, 김성준은 고교 3년 동안 금, 은, 동메달을 목에 건 선수다. 포고 출신 이기섭은 2006~2007년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3개나 획득했다. 여자부 우수 선수는 포항여고 이선희, 동지여상 최대영, 박남숙 등이 있다.

도민체전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우승하고 있다. 2005년 협회장에 취임한 정군섭과 현재 윤광수(전무 김영석)회장은 장학금 지원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 포항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1984년 초대 변승렬 회장이 취임하였고, 김주익, 이상환, 강철순 회장에 이어 2009년 현재 5대 최용달 회장(전무 강상균)이 우수선수를 지원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도민체전 상위입상을 유지하고자 바통을 이어받았다.

1984년 22회 도민체전부터 현재까지 남·여 고등부 및 일반부 경기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여 포항시가 좋은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동호인 배드민턴클럽이 2000년 20여명 정도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10개팀 1,000여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중앙고, 중앙여고의 체육대회 및 특별활동시간에 협회에서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려한결과 동아리 팀을 창단하였고, 클럽대항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우수

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협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합리적인 행정 처리로 임원 선수는 물론 동호인클럽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각종 대회유치 및 진행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 포항태권도협회

포항 태권도의 현재가 있기까지는 50여 년 가까운 역사와 포항의 도시적 기반을 들 수 있다. 지난 1965년 4월 1일 협회 결성 이후 하태환 초대회장, 6대 신의웅, 9대 강석호 회장 체제를 거치면서 협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최상규 3대 회장은 지난 1950년대 중반 무덕관, 상무관과 함께 초기 포항 태권도를 대표한 청도관 초대관장으로 포항지역 태권도 대중화와 후진 육성에 공헌하였다.

포항 태권도가 경북을 대표하며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경기인 출신들이 협회운영 등 실무 전면에 나서 활동한 것이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권도 인프라는 일찌감치 정비되어 운동부육성팀의 양과 질 면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 흥해초, 오천초, 구정초 등 초등학교에서 선수들을 발굴하고, 영신중과 흥해중(남·여부)을 거쳐 영신고와 흥해공고(남·여부) 진학하는 진로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영신중고 체육관은 태권도 전용 시설로 전국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다. 거기에다가 흥해공고 여자팀은 초기에 창단해 오은영, 김지나 등 많은 선수를 배출해왔다. 이밖에 모두 100여개가 넘는 사설 도장도 선수 발굴 및 육성은 물론 강한 결속력으로 뭉쳐 협회를 운영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토의 대표적 선수로는 장질환, 이창근, 정동혁, 김기표, 오은영 등이며, 그 외에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선수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09년 국방부장관기태권도대회 개최로 분주하며, 현재 협회 운영은 문영길 회장(전무 김대수)이 맡고 있다.

21) 포항조정협회

포항조정은 포항1대학 이태준교수가 포항실업전문대, 포항수고에 조정팀을 창단하고 대동고, 동지여상팀이 생기면서 포항과 경북조정협회가 출범했다. 이들 팀들은 형산강에서 훈련을 해왔고, 1975년 56회 전국체전 때는 그곳에서 경기를 했다. 당시 포항수고가 출전해 3위에 입상했다.

1976년 부산 전국체전에서 포항실전이 남대부에서 입상을 시작으로 1979년 대전대회 너클포어 금, 1980년 전주대회에서 대동고, 동지여상, 포항실전 모두가 입상하였고, 1983년 동지여상은 인천대회 금을 비롯하여 그해 6개 대회에 우승전력이 있다. 영일군청 남자팀이 창단됐으나 대구대 팀이 경북소속이 되면서 4년 만에 해체됐다.

1996년 포항시에 남자 조정팀이 생겼다가 이듬해 여자팀으로 바뀌어 활동하고 있다.

포항시청(감독 박성률)팀은 국가대표 등 우수선수들을 스카우트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하여 포항시의 명예를 빛냈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한 대동고와 동지여상팀은 전국체전, 국제대회 우승 등 전 종목에서 술한 우승경력을 갖고 있고, 국가대표선수들도 많이 배출하여 항상 전국 정상권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선수를 확보 못해 시련을 겪고 있다.

육성팀 현황은 포항시청, 대동고, 동지여고, 송도중(남, 여) 등이며, 현재 정동환 회장(전무 김구현)이 협회를 맡고 있다.

22) 포항카누연맹

포항카누협회는 1983년 3월 26일 대한카누협회가 창립됨과 그해 8월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서 지도자 및 선수 등의 강습회가 개최되어 포항전문대 이태준 교수, 대동고 우주환 교사, 엄현태 선수가 참석하여 연수를 받았다. 당시 카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김천수(당시 반공연맹지부장)부회장(전무 우주환) 등이 향토 체육발전을 위해 포항 세무서장을 당연직회장으로 추대했고, 1986년 4월 21일 포항카누협회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어 5월 1일에 대동고, 영일중고, 경북 일반 선수들로 팀 창단식을 가졌다. 이후 영일중고 이도희(여, 1990년 졸업)선수는 국내 여자카약 1인자로 국내대회를 석권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대표 선수로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다.

2008년까지 유지되어 오던 영일중·고팀이 문을 닫고, 현재 육성고는 대송중으로 2003년에 여자부를 창단하여 전국소년체전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의 입상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이동고는 대송중 졸업선수들로 2007년 11월에 창단하였다. 양학중은 2009년 5월 8일에 남·여선수 5명으로 창단하여 다가오는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인주못 카누연습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23) 포항볼링협회

1980년대 포항시청팀이 전국체육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중앙여고팀도 창단되어 운영되기도 했다.

1991년 12월 14일에는 제5회 아시아 도시대항볼링대회를 개최하였고, 1992년 5월 양학여중 볼링부가 창단되어 육성되기도 했다. 1995년 제76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었고, 1983년 3월 취임한 초대 최병화 회장의 경북볼링협회에서 1998년 12월에 포항볼링협회가 분리되어 박기찬 초대회장이 취임하였다. 2002년 9월에는 환호여중 볼링부가 창단되었고, 2004년 3월 김복태 회장이 취임하였으며, 2005년 3월 장성고가 창단되어 도민체전과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양팀 창단의 초대감독은 권준욱 교사이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팀 창단과 선수

들이 마음 놓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취임한 김동택 회장(전무 이동희)은 불링 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각종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24) 포항보디빌딩협회

1980년도 포항시 역도연맹산하 육체미분과위원회로 1987년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창립되고, 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가 창립되면서 포항보디빌딩협회도 창립이 되었다.

초대에서 3대 회장은 경상북도협회와 겸임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경상북도협회가 1997년도 구미시로 이관하면서 제4대 박승렬 회장이 취임하였고, 이릉빈, 유재한, 노상진 회장에 이어 현재 8대 김상호 회장(전무 정준원)이 활동하고 있다. 포항보디빌딩협회는 도민체전에 출전 시에는 10연패 우승을 달성하였고, 도는 물론 전국보디빌딩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가 많이 있다. 노상진심판위원이 국제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내심판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수한 선수로는 1980년대 이릉빈, 노상진, 정준원 등을 배출하였다.

25) 포항골프협회

1991년 김현호 초대회장이 취임하여 8년, 황인찬 2대회장 6년, 정천식 3대회장, 권혁찬 4대회장(전무 최호진)이 2007년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회는 골프경기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키고 동시에 우수한 아마추어 골프인을 양성하여 포항의 명예와 나아가서는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골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지고 있으며, 중요사업으로 경기력 향상과 골프대중화를 위해 매년 골프협회장배대회를 18회째 개최하고 있다.

그 외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선수 파견, 골프대회 개최 및 주관, 골프경기 기술의 연구 및 지도자 양성, 주니어 선수 육성, 도민체전 대표선수 육성 훈련 등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주니어선수들이 발굴되었고, 도민체전 우승 등의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26) 포항우슈협회

2000년 12월 2일 포항우슈협회를 창립하였으며, 초대 회장 이상권 등 12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모임으로 결속하여 2003년부터 도민체전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하였으나 기반은 마련했다. 2004년 2대회장 전광수를 비롯하여 여러 실무이사진이 필승의 전력으로 도민체전

에 참가하여 점차 성적은 향상 되었다. 2007년 3대회장 김수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출범한 협회는 권일두 코치의 열성적인 지도아래 그해 상주대회에서 창립 후 최고 성적인 2위에 오른 후 계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포항체육의 효자종목으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김수인 회장(전무 김종윤)이 맡고 있으며, 그간 포항우수협회가 육성 발굴한 우수선수들이 전국무대에서 빛나는 성적을 거두고 있고,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 중인 선수는 박승모, 김아리, 윤상철 등 이다.

27) 포항사이클연맹

매년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 선수선발이 어렵고, 성적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위권을 맴돌아 체육회 주선으로 2007년 1월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박의룡 회장(전무 한경희)을 추대하고 그해 제45회 상주도민체전에서 종합2위를 하였고, 선수발굴차원에서 포항시장배 M.T.B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46회 도민체전에서는 선수들을 잘 선발하여 우승을 차지하였다.

2009년 3월 1일에 자전거 타기 및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두호동, 해맞이공원. 환여동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애국심과 사이클연맹을 홍보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09년 제47회 도민체전에서도 2위를 차지하였는데, 공로선수 김민준(장성고)은 2003년 초등 6년때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 M.T.B동호인들과 함께하다가 박염식 현 코치에게 발탁되어 대도중, 장성고로 진학하여 2006년 전국소년체전 금메달과 2007년 전국소년체전에서는 3관왕을 차지하였고, 전국체전에 계속 입상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다.

28) 포항롤러연맹

포항시인라인롤러연맹은 2004년 초대 신재천 회장을 시작으로 2008년 취임한 양성일 회장(전무 : 신종혁)이 인라인롤러연맹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연맹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동을 제외한 시·군은 도민체전 마다 동호인 선수와 일부 선수출신으로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도민체전의 인라인 롤러는 일반부 남녀 각 개인종목 3종목과 계주로 이루어진다.

포항의 대표선수는 각 동호회 선수들 중에서 선발하며, 현재까지의 도민체전 참가 성적을 보면 중위의 성적을 거양 하고 있다. 이는 체육회 및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안동을 비롯해 영주, 김천, 구미, 경산 등 5개 시도에는 बैं크 트랙이 경주에는 인라인 전용 트랙이 있어 대회경기장과 같은 조건에서 훈련하고 있지만 포항은 형산강 둔치의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 주차장과 같

은 열악한 조건에서 훈련하고 있다. 학교운동부는 신흥초에서 2007년 창단하여 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있으나, 훈련장 환경조성 등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29) 포항빙상연맹

포항빙상연맹은 회장 김민수(전무 김영석)를 비롯하여 뜻있는 임원들이 1995년 포항빙상연맹을 창립하였고, 2001년 2월 19일에는 빙상불모지 포항에서 ‘제1회 포항시빙상연맹회장배대회’를 야외 포항스케이팅장(두호동 INI스틸 부지)에서 개최하였는데, 2000년 전주 유니버시아드대회 후 빙상시설을 2년간 리스하여 훌륭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9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2004년 2월 포항시체육회 정가맹 경기단체로 승인되었고, 한편 신동호는 2004년 11월 23일 장성서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현대식 실내 정규 포항아이스링크장을 개장하게 된다. 개장식에는 내빈과 빙상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포항아이스링크장의 개장 후 처음 전주에서 열린 제21회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쇼트트랙빙상경기대회에 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다.

2005년 9월 4일에는 제1회 생활체육 포항빙상연합회장배 영남 동호인대회가 열렸고, 현재 3대 김진규 회장(전무 민형규)이 협회를 맡고 있다.

2008년 5월 처음 열린 포항시장배 스케이팅대회는 해마다 개최되어 포항시민들에게 새로운 운동문화를 선사하고 있다.

30) 포항체조협회

1981년 들어 대구시가 분리되면서 체조협회는 두 차례에 걸쳐 회장 부재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체조인들의 노력과 포철학원 후원으로 학교팀을 잇따라 창단,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다. 1983년 3월 포철중 남·여 팀이 창단되고, 1986년 3월 포철고 체조부가 창단되었다. 1987년 3월에는 포철서초 팀이 창단되면서 진로연계가 되어 각종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포철교육재단에서는 비인기 종목인 체조인구의 저변확대와 세계적인 체조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 1983년 체조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1984년부터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포철서초, 중, 고 남·여 팀은 전국체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수면, 이장형 등 전·현 국가대표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명실상부한 학교운동부 모범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체조선진국들의 높은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소련에서 국제적인 코치를 초빙하여 지도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지도자를 초빙하여 꿈나무 선수들의 지도를 맡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 이루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체조팀의 선수수급

을 위해 상설체조교실을 운영하며, 포철교육재단 인근 초등학교에서 신인 선수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광열 회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31) 포항산악연맹

포항연맹은 포항시민의 산악운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체력향상,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산악인과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68년 10월 15일 설립하였다. 활동부서는 환경보전, 교육기술, 일반등산, 스포츠클라이밍, 청소년, 안전대책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일반등산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산악활동은 단순히 어려운 산을 오르는 모험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활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어려운 벽을 오르는 알파인 등반에서부터 대암벽등반, 빙벽등반, 도심지에 설치한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까지 다양하며 등반가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쪽의 등반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발전하였다. 포항에서도 좋은 시설의 “포항 인공암벽장”을 기반으로 많은 동호인과 전문선수가 활동하고 있고 신진 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부터 전문등반, 체육경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포항 산악연맹은 “자연사랑”과 “인간사랑”이라는 큰 틀의 산악문화를 창달하는 체육문화 단체로 발전 노력하고 있다.

32) 포항스쿼시협회

준가맹 협회로 2000년 3월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천기화(전무 박규훈)가 취임했고 2006년 87회 전국체전 시범종목대회가 포항에서 열렸고, 2007년1월 포항시체육회 준 가맹단체로 승인되었다. 2006년~2009년 포항시장배 생활체육 영남오픈대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도민체전, 전국체전, 아시안게임 등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것을 대비 저변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4. 육성팀 및 프로 스포츠

1) 시청 운동부 육성 현황

포항시는 유도, 육상, 조정의 3개 팀 직장운동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도팀은 1990년 3월 21일에 창단하여 감독 1, 코치 1, 선수 14명, 조정팀은 1991년 4월 12일 창단하여 감독 1, 코치 1,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팀은 1994년 1월

11일 창단하여 감독 1, 코치 1, 선수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적인 훈련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내외 각종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포항시와 경북체육의 명예를 크게 빛내고 체육 선진문화도시로 도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종 체육대회 수상실적(전국단위대회 이상)

년도별	계	유도	육상	조정
2007년도	76	42	5	29
2008년도	95	56	10	29

2) 포항교육청 학교운동부 현황

순	종 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육 상	대도초, 신흥초, 대흥초, 원동초	대흥중, 상도중	두호고
2	수 영	대도초, 신흥초, 유강초	유강중	포해과고
3	축 구	상대초, 문덕초, 포철동초	항도중, 포철중	포철공고, 포항여전고
4	야 구	대해초	포항중, 포철중	포철공고
5	배 구	동부초, 오천초, 항도초	포항여중	포항여고
6	탁 구	장량초	대흥중☆	두호고*
7	사 이 클			장성고
8	레 슬 링		오천중	오천고
9	역 도		대도중, 창포중, 환호여중	포해과고
10	유 도	양학초	동지중, 동지여중	동지고
11	검 도		대동중	대동고
12	사 격		대도중, 상도중, 송도중, 동지여중	포항고, 동지여고
13	체 조	포철서초	포철중	포철고
14	태 권 도	오천초, 구정초, 흥해초	영신중, 흥해중	영신고, 흥해공고
15	인 라 인	신흥초		
16	카 누		대송중, 양학중	이동고
17	조 정		송도중	대동고, 동지여고
18	볼 링		환호여중	장성고
19	골 프			중앙고
20	우 슈			중앙고
20	총 목	17개교 22팀	19개교 27팀	16개교 23팀

3) 포항스틸러스 축구단

1973년 4월 실업축구단으로 창단하여 1984년 프로축구클럽으로 전환하였으며 지금까지 이회택, 최순호, 홍명보, 황선홍 등 52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등 한국축구 스타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였고, 2000년 클럽하우스를 준공하는 등 축구인프라 구축에도 아낌없는 투자로 한국축구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포항스틸러스는 한국 축구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03년부터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축구부(포철동초, 포철중, 포철공고)를 클럽소속으로 전환하여 U-12, U-15, U-18클럽의 선진국형 선수육성 클럽시스템을 도입 자체육성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포항시내에 인조잔디구장을 건립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교실을 운영해 지역축구 붐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밀착 활동을 강화하여 진정한 시민클럽으로 거듭나기 위해 포항스틸러스 홈경기를 지역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켰고,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공헌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포항스틸러스는 K-리그 14개 구단 중 2008년 관중증가율(98.5%) 1위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2005년 국내 최초로 브라질 출신의 파리아스 감독을 영입해 브라질의 공격축구로 K-리그를 보다 빠르고 재미있게 변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5년만의 K-리그 우승과 2008년 12년만의 FA컵 우승을 일궈내며 포항 팬들에게 진정한 축구의 묘미와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금년에는 총체적인 한국프로축구의 위기상황 속에서 EPL(영국 프리미어리그)을 모델삼아 깨끗한 플레이를 통한 박진감과 긴장감 넘치는 경기, 심판의 판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스포츠 본연의 의미를 살린 혁신적인 “Steelers Way”를 도입 다시 한번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부흥을 이끌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연 혁

- 1973년 포항제철축구단 창단
- 1974년 대통령배전국축구대회우승
- 1982년 코리언리그 우승
- 1984년 프로축구단 전환

- 1985년 팀 명칭 변경(돌핀즈→아톰즈)
- 1986년 축구대제전 종합우승
- 1988년 한국프로축구대회 우승
- 1990년 국내 최초 축구전용구장 건립
- 1992년 한국프로축구대회 우승
- 1993년 아디다스컵 축구대회우승
- 1995년 주)포항프로축구창립(별도법인)
- 1995년 프로축구하이트배 후기리그우승
- 1996년 제1회 FA컵대회 우승
- 1997년 팀 명칭변경(아톰즈→스틸러스)
- 1997년 제16회 아시안클럽 선수권대회우승
- 1998년 제17회 아시안클럽 선수권대회우승
- 2000년 송라 스틸러스클럽하우스 준공
- 2001년 제6회 서울은행FA컵 준우승
- 2002년 제7회 서울은-하나은 FA컵 준우승
- 2003년 유소년 클럽 시스템 도입
- 2003년 사명변경 (주)포항스틸러스
- 2004년 K리그 준우승
- 2005년 국내최초 팀 1,000호골, 팀 통산 300승
- 2005년 A-3 닛산 챔피언스컵 준우승
- 2006년 삼성하우젠 K리그 통합3위, 후기2위
- 2007년 삼성하우젠 K리그 우승
- 2007년 제12회 하나은행FA컵 준우승
- 2008년 제13회 하나은행FA컵 우승

5.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활동기회를 마련해주고 나아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선진 체육문화 창달, 동호인회의 활성화로 사회체육의 저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국민체육 진흥종합계획(1991년2월6일) 에 의거 설립

2)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 연혁

- 1990. 7. 6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 결성
- 1991. 2. 6 사)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허가
- 1991. 3. 1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개설(종합경기장 내)
- 1995. 1. 1 포항시, 영일군 생활체육협의회 행정통합
(영일군 생활체육협의회장 이선오 : 1990. 7. 6~1994. 12. 31)

3) 역대회장

- 초대회장 : 이용득 (1990. 7. 6~1992. 9. 30)
- 2대 회장 : 신의웅 (1992. 10. 1~1996. 2. 28) 사무국장 : 권용승
- 3·4대 회장 : 임승박 (1996. 3. 1~2000. 4. 28) 사무국장 : 권용승
- 5대 회장 : 박문식 (2004. 8. 31~2007. 4. 5) 사무국장 : 권용승, 이기만
- 6대 회장 : 이상구 (2007. 4. 6~) 사무국장 : 이기만

4) 포항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현황

(1) 가맹단체 수 : 35개 종목별 연합회

(2) 지도자 현황

계	전일제 지도자	어르신전담 지도자	생활체육 교실사업	생활체육 진흥사업	생활체육 광장사업	1991년2월6일 스포츠클럽 매니저
41	11	4	17(6개월)	7(8개월)	4(7개월)	1

5) 사업내역

- 생활체육전일제지도자운영(9명)
- 생활체육진흥사업(7개소, 8개월 운영)
- 경상북도지사기대회참가(16종목)
- 시장기종목별대회개최
- 경북리그축구대회지역예선
- 어르신전담지도자운영(3명)
- 생활체육교실사업(17개소, 6개월 운영)
- 경상북도지사기대회개최
- 도민생활체육대회참가
- 도 씨름왕 선발대회

- 시 씨름왕 선발대회
- 자매 도시간 생활체육대회 개최
- 해양스포츠 교실
- 전국배구대회 참가
-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
- 게이트볼대회참가
- 생활체육포항리그
- 어머니축구(어머니축구단)교실

6) 시장기대회 개최현황(2008년도)

- 제2회 포항영일만 울트라마라톤대회(2008. 5. 10), 종합경기장
- 제7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2008. 5. 18), 실내체육관
- 포항시장기 전통무용경연대회(2008. 5. 24), 흥해문화복지센터
- 2008 포항시장기 스케이팅대회(2008. 5. 25), 스케이팅장
- 제12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직장대항 축구대회(2008. 5. 31), 종합경기장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정구대회(2008. 6. 1), 해맞이정구장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조대회(2008. 6. 14), 실내체육관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2008. 6. 14), 게이트볼장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풋살대회(2008. 6. 14), 문덕구장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야구대회(2008. 6. 14), 야구장
- 제2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2008. 6. 14), 포항스쿼시장
- 제3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국학기공대회(2008. 6. 22), 문화예술회관
- 제2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볼링대회(2008. 7. 27), 시민볼링장
- 제2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비치발리대회(2008. 8. 3), 북부해수욕장
- 동암선생추모 2008 포항시장기 경북유도선수권대회(2008. 8. 4), 포항실내체육관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택견대회(2008. 8. 23), 포항체육관
- 제16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클럽대항 테니스대회(2008. 8. 24), 포항시민테니스장
- 2008 포항시장배 및 포항시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2008. 9. 29),
오션힐스 포항컨트리클럽
- 제2회포항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2008. 10. 5), 포항영일신항만
- 제1회 포항시장배 한동 희망축구대회(2008. 10. 7), 한동대학교
- 제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2008. 10.19), 포항족구장
- 제2회 포항시장기 태권도대회(2008. 11. 2), 포항체육관
- 제11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경북오픈탁구대회(2008. 11. 9), 포항실내체육관
- 제12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궁도대회(2008. 11.16), 송학정
- 제8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전국 합기도대회(2008. 12.13), 포항체육관
- 제6회 포항시장기 생활체육 클럽대항축구대회(2008. 12.14), 종합경기장

6. 포항체육의 중흥(각종대회 유치 등)

포항시가 선진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포항시는 박승호 시장 취임 후 체육계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박 시장은 2006년 취임 이후 프로축구 홈경기를 자주 관전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과시하였고, 특히 박 시장이 관람한 경기에 흠에서 포항스틸러스가 무패행진을 달려 ‘박 시장이 경기장에 오면 지지 않는다’는 ‘안방 불패’ 신화가 생겨나기도 했다.

포항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전국대회 유치에 나서 굵직한 스포츠 행사 유치에 성공했다.

2006년도 포항체육관에서 제33회 회장기전국유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때 포항의 대표적인 겨울 특산물인 과메기 홍보에 지대한 효과를 올린 것을 감안해 계속적으로 대회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이만기, 이봉걸 등 역대 천하장사들의 과메기 시식행사와 함께 과메기 홍보문구가 담긴 광고판이 TV에 나올 동안 생중계 되면서 전국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2007년도에는 전국남녀중별탁구선수권대회, 전국중별태권도선수권대회, 한국 실업 유도 연맹전, 전국소년체전, 회장기전국고교검도선수권대회, KBO총재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16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2008년도에는 전국역도선수권대회 및 전국여자 역도대회, KBS배 전국체조대회, 스포츠평타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등 18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줄을 이었다.

이와 같이 대형 스포츠 행사의 지속적인 유치로 선진 체육·스포츠 도시로의 이미지를 굳히고, 지역홍보와 짝짤한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뒀다.

또, 다수 종목의 도지사기대회를 열어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로써 전국대회 및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도민체전 종합우승 탈환으로 경북 제1 도시의 위상을 회복하였고, 안정적인 우승을 위해 꿈나무선수와 우수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 장학금 수여, 우수선수 확보 및 서포터즈 활동의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3절 국내·외 대회와 포항체육

1. 전국체육대회와 포항

1) 전국체육대회의 역사와 개요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전국체전이라고도 한다. 1920년 11월 조선체육회가 배재고등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기원으로 하며, 이 대회부터 횡수를 가산하여 왔다.

개최 시기는 매년 10월에 개최하며, 스케이트와 스키경기가 개최되는 동계대회는 1~2월에 실시한다.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각 종목 경기단체의 경기를 개최하며, 대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는 산하 경기단체의 개별적인 경기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방법은 시·도 대항으로 하게 된다. 경기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대회 첫날에 거행하는 개회식에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를 봉송과정을 거쳐 성화대에 점화하는 의식을 가진다.

시상은 종합성적, 고등부·일반부의 부별 종합성적, 경기종목별 성적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모범선수단 등에 주는 특별상이 있다.

1929년 조선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의 종합대회인 전조선경기대회를 개최하였고, 1938년 조선체육회가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강제 통합되면서 18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가, 1945년 8.15와 함께 부활, 자유해방 경축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명칭으로 경기를 개최하였는데, 이것이 제26회 전국체육대회이다.

1946년 대회명칭을 조선올림픽으로 하고 1948년 제29회 대회부터 전국체육대회로 이름을 개칭하였으며, 종전의 자유 참가제를 시·도 대항제로 정착시켰다.

1949년 제30회 대회에는 전국체육대회가 제정되었고, 1951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32회 대회가 피난지인 광주에서 개최되어 세계 스포츠인들의 격려를 받았으며, 1955년 제36회 대회부터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릴레이를 시작하였다.

1960년 대전 대회부터 경기채점규정이 제정, 실시되어 채점의 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1963년 전주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선수 70%에 대한 대규모의 민박제도가 실시되어 향토간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2) 전국체육대회 개최

1995년 10월 2일부터 8일간 7일간 진행된 제76회 전국체육대회는 체전사상 처음으로 중소도시인 포항에서 개최되었다. 역대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인 대회였으며, 해외동포를 비롯한 선수 임원들이 시민의 따뜻한 환영과 자원 봉사로 모두 하나가 되어 명실상부한 민족 대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킨 대회였다. 경상북도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방 선수단으로서는 드물게 제49회, 제51회 대회에서 두 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58회 대회 이후 줄곧 4위에 머물렀다. 대구광역시가 경북에서 분리되기 이전인 1975년 제56회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1985년 제14회 전국소년체전이 포항에서 개최된 적은 있었으나 사실상 경상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는 처음이었다.

제76회 전국체육대회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그리고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에, 중소도시인 포항에서 치러짐으로써 그 어느 대회보다 경축의 뜻이 깊었으며 앞으로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도 전국체전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의미 있는 대회였다. 종합 성적은 1976년 제57회 부산대회 이후 20년 만에 3위로 입상하였다. 포항에서 육상, 수영, 체조 등 14개 종목이 1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기록면에서는 세계신기록 3개, 한국 신기록 15개, 한국타이기록 4개, 한국주니어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150개, 대회타이기록 36개 등 총 207개가 수립된 대회였다. 경북은 개최지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한꺼번에 따내 금50, 은58, 동86 등 메달 194개와 종합성적 4만 6천 480점으로 3위를 달성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경상북도는 75회 대회보다 12,567점을 더 얻어 영예의 대통령배인 성취상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08년 87회 전국체전은 야구, 사격, 체조, 볼링, 조정, 역도, 유도 등 8종목을 포함 시에서 개최하였으며,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전국에 알렸다.

3) 전국체육대회 참가

(1) 50년대 전국체육대회

제35회 전국체전(1954, 서울)은 단 하나뿐인 종합경기장 서울운동장에서 열렸고, 포항팀의 선수들이 최초 입상한 대회로 동지여중 농구부가 준결승에서 전주 중앙여중에 24:30으로 져 3위에 입상하였다. 이후 동지여중은 제36회(1955년), 제37회(1956년) 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라 서울 순명여중에 져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여 기쁨을 토하였으며, 포항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제39회 대회(1958년)에서는 럭비 일반부 포항구락부가 인천구락부에 11:19로 져 3위를 차지하였지만 우리 고장 포항의 럭비실력을 전국에 과시하였다.

(2) 1960년대 전국체육대회

제50회 전국체전(1969년, 서울)에서 포항팀은 검도 대학부에 출전한 포항수산대가 결승전에서 충남선발과 2 : 2로 비겼다.

(3) 1970년대 전국체육대회

제51회 전국체전(1970, 서울) 라이벌 서울의 홈에서 49회 대회(1968년) 이후 경북의 감격적인 종합우승이었다.

제52회 전국체전(1971, 서울)은 검도에서 동지중이 3위를 하였고, 제56회 전국체전(1975, 대구)은 홈에서 종합우승을 노렸으나 경북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포항팀은 축구 일반부에서 포항제철팀이 2위, 배구 남대부에서 포항실전팀이 2위를 차지하였다.

제57회 전국체전(1976, 부산)은 축구에서 포항제철이 전년도에 이어 준우승을 하였으며, 조정 남대부에서 포항실전이 2위 1종목, 3위 2종목을 차지하였다.

제59회 전국체전(1978, 인천)은 일반부 포항제철팀은 축구와 야구에서 나란히 3위를 하였다.

제60회 전국체전(1979, 대전)은 조정 남일반부 포항실전팀이 처음 신설된 너클포어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기업을 토하였다.

(4) 1980년대 전국체육대회

제61회 전국체전(1980, 전주)은 수영 남고부 천인태(포항수고)가 평영 100m, 200m에서 1위를 하여 포항 최초 전국체전 2관왕이 되어 주목을 받았다. 야구 일반부에서 포항제철이 우승을 하였고, 조정에서 동지여상, 포항실전팀이 나란히 3위로 입상하였다.

제62회 전국체전(1981, 서울)은 수영에서 천인태(포항수고)의 잔치였다. 남고부 평영 100m와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3개나 수립하여 우리나라 수영계에 희망을 주면서 2관왕에 올랐고, 야구 고등부에서 포철공고가 3위를 차지하였다.

제63회 전국체전(1982, 마산)은 사격에서 남고 김태호(포항고)가 개인3위, 야구에서 포철공고가 전년도에 이어 3위를 하였다.

제64회 전국체전(1983, 인천)은 조정 너클포어에서 동지여상팀이 우승을 하고, 야구에서 포철공고가 준우승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고, 포항상공회의소 유도선수들이 3명, 포항제철 축구팀이 전년도에 이어 입상하였다.

제65회 전국체전(1984, 대구)은 향토팀의 입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사격에서 포항고가 단체전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워 우승하였고, 최주호(포항고)는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여 2관왕이 되었다. 수영 남일반 평영에서 천인태가 2관왕, 조정 유타포어에서 동지여상이 우승, 포항실전 입상, 유도 일반부에서 포항상공회의소가 단체우승, 테니

스 여일반 복식 포항제철 우승, 단식 2위 등 좋은 결과를 얻었다.

제66회 전국체전(1985, 춘천 등)은 수영 남일반 천인태(한체대)의 2관왕, 축구 일반부 포항제철, 볼링 여일반 2인조 박용옥, 주종숙(포항시청)은 단체전 우승을 포함 2관왕 외, 향토 선수 장전수(경북체고)는 5,0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였고, 테니스 여일반 포항제철, 유도 일반부 포항상의, 사격 포항고, 조정 동지여상, 포항실전 등이 입상하였다.

제67회 전국체전은 아시안게임 주최로 1986년 서울 등에서 분산 개최되었을 때 사격은 포항고 금메달, 최운산(포항고) 개인3위, 조정은 동지여상이 유타포어 금메달, 포항실전 2개 부문 입상, 볼링은 여일반부 3인조 우승 등 2인조, 3인조, 5인조에서도 입상하였다.

제68회 전국체전(1987, 광주)은 육상에서 향토선수 박경식(경북체고)이 100m, 200m 대회 신기록으로 2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스프린터로 떠올랐다. 수영에서 이승협(포항수고)은 남고부 자유형 1,5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축구에서는 포항제철이 일반부에서 우승하였다. 수구(포항수고), 테니스 여일반 포항제철, 검도 대동고 3위, 체조 강태원(포철고)가 철봉과 개인종합 2위 2개, 조정은 동지여상과 포항실전이 입상하였다. 볼링 포항시청 4개, 카누는 남일 제철화학, 여일 포항버스팀이 입상하였다.

제69회 전국체전은 88올림픽대회 관계로 전국에 분산개최 되었다. 수영에서 이승협(포항수고)은 자유형 400m, 1,500m에서 남고부 2관왕에 올랐고, 축구 일반부에서 포항제철이 금메달, 테니스 여일반 포항제철 금메달, 볼링 주종숙, 박용옥(포항시청)은 2인조, 3인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 외 개인종합, 5인조에서 입상, 카누와 육상 등에서도 입상하였다.

제70회 전국체전(1989, 경기도)은 테니스 포항제철 여일반부가 우승했고, 카누에서 영일고 이도희 선수가 K1, K2에 하수미(영일고)와 함께 우승하여 2관왕이 되었고, 체조에서는 남일반 채광석(포철중 교사)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5) 1990년대 전국체육대회

제71회 전국체전(1990, 청주시 등)은 테니스 여일반과 유도 남일반 이종우(포항시청), 볼링 여일 마스터즈 박용옥(포항시청)등이 3인조, 5인조에 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육상 김순형(경북체고) 수영 장시영(한체대), 이승협(경북대), 카누 영일고 남녀, 유도 남일 포항시청, 조정 대동고 등이 입상하였다.

제72회 전국체전(1991, 전주 등)은 사격에서 남고 김성준(포항고)이 금메달, 테니스 여일 포항제철, 볼링 여일 마스터즈 주종숙(포항시청)이 5인조(포항시청)에서 금메달로

2관왕, 조정 유타포어 대동고, 럭비 제철화학, 유도 포항시청 2명, 볼링 마스터즈 3인조 등에서 입상하였다.

제73회 전국체전(1992, 대구)은 수구 포항수고, 축구 포철공고, 사격 포항고, 체조 평행봉 이장형(포철고), 테니스 여일반 포항제철, 유도 포항시청 이종우 등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테니스 여일반 포항제철은 6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이루었고, 포항고 김성준, 포철고 이장형도 다메달 선수가 되었다. 남일반 수영과 수구, 유도(포항시청), 영일고 카누 등도 입상하였다. 제74회 전국체전(1993, 광주)은 체조 여자 평균대 박지영(포철고), 카누 남자 K2 신광택, 김병태(영일고)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수영 남일 장시영 2개, 유도 포항시청 31경, 사격 김성준(포항고) 육상 남고 200m 강용(세명고), 체조 정동창(포철고), 테니스 여일반 포항제철 등이 입상하였다.

제75회 전국체전(199, 대전)은 수영 남일 평영 100m, 200m 장시영(상무)이 금메달을 따서 수구 포함 3관왕이 되었다. 체조 이장형(한양대), 수구(선발), 조정 대동고, 카누 영일고 등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조정 동지여상, 카누 영일고, 육상 남영희(세명고), 체조 포철고 남,여, 유도 포항시청 등이 입상하였다.

제76회 전국체전(1995, 포항 등)은 홈그라운드 포항선수들의 경기전적을 보면 체조 여고 박지영(포철고)은 도마, 평균대에 2관왕을 차지했고, 육상 여일 한상원(포항시청)은 멀리뛰기, 7종경기에서 체조 남고 안마 김종철(포철고), 조정 동지여상과 대동고, 유도 고경두(포항시청)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은메달은 카누 영일고 육상 남고 1,500m 박광열(중앙고), 유도에서 포항시청 3명 등이 입상하였고 동메달은 수구(포항수고), 체조(포철고), 유도(동지고), 카누(영일고), 검도(대동고), 럭비(포스코켄) 등이 입상하였다.

제77회 전국체전(1996, 춘천 등)은 육상 한상원(포항시청)의 2관왕 2연패, 조정 동지여상, 카누 최종구(영일고)등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유도 이성훈(동지고), 체조 링 박상민(포철고), 여고 마루 이미현(포철고)등이 은메달을 땀다.

제78회 전국체전(1997, 창원 등)은 육상에서 세명고를 졸업한 강용(영남대 3)은 100m, 200m, 1600mR에서 3관왕을 차지하여 기업을 토하였다. 한상원(포항시청)은 멀리뛰기에서 1위를 하여 3연패를 이루었고, 체조 박상민, 박지영(포철고)가 남·여고 링과 평균대, 수구(포항수고), 조정(동지여상) 등이 2위를 하였다. 체조 여고 단체와 이미현, 카누(영일고), 사격(동지여상), 유도, 조정(포항시청)에서 3위를 하였다. 그 외 향토 선수들은 성적이 부진했다.

제79회 전국체전(1998, 제주)은. 체조 여고 평균대와 이단 평행봉에서 박지영(포철고)과 이미현 선수가 각각 금메달, 유도 남일반 조병욱(포항시청)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 외 카누(영일고) 2개, 유도(동지고) 3명, 사격 단체와 최대영(동지여상), 조정(동

지여상), 럭비(포항도금강관), 체조 남녀 4개, 유도 포항시청 3개, 역도 김동욱(포항수고) 은메달 3개, 조정(포항시청) 등이 입상하였다.

제80회 전국체전(1999, 인천)은 육상 10종경기에서 김건우(한체대), 수영 수구(선발), 역도 정준교(포항수고)가 금메달을 땀고, 유도 김정훈(동지고), 남일반 조병욱, 고경두(이상 포항시청)가 금메달, 체조 손혁(포철고)이 개인종합, 안마, 평행봉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어 3관왕이 되어 기업을 토했고, 철봉에서도 동메달을 땀다. 역도 김동욱(포항수고)은 3개 종목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유도 최성근, 윤순명(동지고)등이 은메달, 레슬링에서 정원교가 양형에서 동메달 2개, 사격 김성준(상무) 은메달 2개, 사격 단체, 조정 (동지여상) 등이 입상하였다.

(6) 2000년대 전국체육대회

제81회 전국체전(2000, 부산)은 포항수고 출신 김동욱(경북)은 역도 +75kg급에서 한국신기록, 한국주니어 신기록으로 2관왕이 됐다. 단체경기는 포항 대동고가 검도에서 1위, 경북 수구팀은 2위, 역도 56kg급 최성수(포항수고) 2관왕을 차지하였다.

제82회 전국체전(2001, 천안 등)은 역도 여일 +75kg급 김동욱(경북)이 한국주니어 타이기록, 대회타이기록으로 3관왕을 차지하였고, 유도 장성숙(포항시청)은 여일반 63kg에서, 석정수(동지고)는 남고 66kg급에서 우승했고, 체조 남고 평행봉에서 이상재(포철고)도 정상에 등극했다. 포항수고 수구부는 아쉽게 준우승을 했다.

제83회 전국체전(2002, 제주)은 여고 역도에서 이재인(해과고)은 2관왕에 올랐고, 유도에서 김재범(동지고), 현승훈(포항시청), 태권도 김기표(영신고), 손은희(흥해공고), 레슬링 이동열(오천고)은 금메달, 체조의 이상대, 진달래(이상 포철고)는 각각 남고 평행봉과 여고 평균대에서 1위를 했다.

제84회 전국체전(2003, 전주 외)은 남고 역도에서 김철민(해과고)은 2관왕에 올랐고, 체조에서 김수면(포철고)는 도마에서 1위에 올랐고, 유도 현승훈(포항시청)은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달성했다. 조정 양충숙, 강연희(포항시청)조는 무타페어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85회 전국체전(2004, 청주 외)은 레슬링 김재강, 남경진(오천고), 유도에서 박가영, 이소연(포항시청), 체조에서는 김수면(포철고)이 유일하게 금메달을 땀다.

제86회 전국체전(2005, 울산)은 레슬링 김재강, 남경진(오천고)이 각각 1위를 하여 전년도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고, 역도에서 이선경(해과고)이 전년도에 이어 2연패를 하였고, 태권도에서 김지나(흥해공고), 주정현(영신고), 조정에서 김옥경(포항시청)이 싱글스컬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87회 전국체전(2006, 김천 외)은 레슬링 김재강(영남대), 남경진(오천고)가 금메달을

따 대회 3연패를 하였고, 역도에서 정광교(해과고), 체조 유한솔, 신명재(포철고)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에서는 김재열(경북체고)가 남고 800m에서 금메달을 땀다.

제88회 전국체전(2007, 광주)은 육상에서 김재열(경북체고), 김건우(포항시청)가 1위를 하였고, 역도에서 석영진(해과고)이 인상과 합계에서 2관왕을 하였고, 유도 서동규(포항시청), 체조 유한솔(포철고), 태권도 김재아(흥해공고)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정 여일반 포항시청이 더블스컬과 무타포어에서 금메달을 땀다.

제89회 전국체전(2008, 여수 외)은 역도에서 석영진(포해과고)이 3관왕을 차지하였고, 유도 이희중(동지고), 안정환(포항시청), 공자영(포항시청), 육상 김재열(한체대), 레슬링 박기찬(오천고), 조정(포항시청) 더블스컬에서 각각 금메달을 땀다.

2.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포항

1)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역사와 개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슬로건 아래 1972년 창설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최초 대회명칭이 전국스포츠소년대회였으나 1975년 제4회 대회부터 바뀌었으며, 소년 소녀들에게 기초적인 스포츠보급, 스포츠 정신 고취를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기반 조성,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었다.

시·도 대항전으로 시작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회를 거듭하면서 지나친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제기돼 1980년 제9회 대회 때부터 종합시상제가 폐지된 것을 비롯하여, 1989년부터 3년간은 각 시·도별 대회만 열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대회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 경기력 약화와 우수선수 조기 발굴에 어려움을 겪자 1992년 제21회 대회 때부터 전국대회로 부활됐다.

2)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1986년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1985년 제1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2일부터 5일간 개최되었다. 13개 시·도와 재일·재미동포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사상 처음으로 도청 소재지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열렸다.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으나 경기장 시설, 대회 진행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 이 대회는 지역의 스포츠 발전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대폭 확장,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 환경의 개선 등에서 부수적인 효과를 동반하여 포항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능력(각종 경기장 및 진행 능력)을 보

유하게 됨으로서 각종 주요 대회가 포항에서 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항 대회부터 초등학교 테니스와 연식 정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총 26개 종목의 경기를 하였다. 비공인 세계 신기록 2개, 타이기록 17개를 수립하여 질적인 면에서는 진전을 보였다. 종합성적에서 경북은 전년도 8위에서 4위로 뛰어올라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이후 포항에서 열린 대회는 제25회 전국소년체전(1996년 포항 외)으로 경북 선수단은 주최도시의 이점을 살려 금16, 은16, 동39개 등 71개의 메달을 획득해 선전하였다. 체조종목 김영민(포철서초)은 남초 마루, 안마, 개인종합을 휩쓸어 3관왕에 올랐고, 육상, 사격, 유도, 체조, 남초 축구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포항선수들의 성적이 특히 좋았다.

3)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제1회 전국소년체전(1972, 서울)은 수영 신우현(청림초)이 100, 200m 자유형에서 2관왕을 차지하였으며, 제2회 대회(1973, 대전)는 수영 김영숙(청림초)이 접영에서 은,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제3회 대회(1974, 서울)에서는 허규(송라중)가 수영 자유형에서 입상하였다. 제6회 대회(1977, 서울)에서 수영 김형섭(포항중)이 입상하였고, 제7회 대회(1978, 대구)에서 수영의 김성호(구룡포중), 태권도의 장질환(흥해중)등이 입상하였다. 제10회 대회(1981, 광주)에서는 육상 110m 박상걸(흥해중)이 입상하였고, 제11회 대회(1982, 대전)에서 육상 1,500m의 장전수(기계중)이 입상하였고, 제12회 대회(1983, 전북)에서 육상 200m 박권민(송도초), 김수미(포항여중), 수영 김해운(구룡포초), 박두근(대도중), 태권도 이병진(흥해중)이 입상하였고, 제13회 대회(1984, 제주)에서 육상 박경식(동지중)이 100m, 200m에 우승하여 2관왕을 차지하여 기업을 토했다. 제14회 대회(1985, 포항)에서는 이승협(포항초)이 수영 자유형 400m, 800m에서 우승하여 2관왕을 차지하고, 체조 손주수(포철초), 육상 김순형(대해초)가 입상하는 등 포항선수들의 성적이 좋았다.

1986년 5회 대회부터 1991년 20회 대회까지 분산개최 또는 시·도별로 개최되었다. 제21회 전국소년체전(1992, 대구 등 4개 시도)은 포항선수단이 체조에서 금메달을 쏟아냈다. 김재호(포철서초)는 뽀름과 개인종합에 우승하여 2관왕이 됐고, 손혁(포철서초)은 마루, 서현주(포철서초)는 2단 평행봉, 박지영(포철중)은 마루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제22회 대회(1993, 서울 경기)에서 체조에서 많이 입상하였으며, 손혁(포철서초)은 지난대회 이어 뽀름에서 우승하여 2연패를 하였다. 제23회 대회(1994, 광주)에서는 체조 장재성, 박지영(이상 포철중), 수영 계영(포항중)이 금메달, 사격 김상협(상도중), 체조 이정민(포철서초)이 은메달, 체조 강윤정(포철서초), 태권도 정동혁(흥해중)이 동메달을 따서 금3, 은3, 동4 합계 10개의 메달을 수확하였다. 제24회 대

회(1995, 대전)는 체조 단체(포철서초), 마루 김재호(포철중)가 금메달, 축구 포철동초 은메달을 비롯하여 금2, 은2, 동5개로 총 9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25회 대회(1996, 포항)에서는 홈그라운드인 잇점을 살려 포철동초 축구가 우승을 하고 체조의 김영민(포철서초)이 3관왕을 하는 등 금9, 은6, 동9 총 24개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제26회 대회(1997, 강원)에서는 역도 이윤희의 금1, 은10, 동6개로 총 17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27회 대회(1998, 경남)에서는 유도의 동지중 이종혁 등 3체급에서 금메달을 따고, 체조에서 이용태(포철서초), 김경민(포철중)이 2개를 합하여 금5, 은메달은 포항중 야구를 비롯하여 8, 동메달은 육상의 방수호(포항초)를 비롯 5, 합계 18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28회 대회(1999, 제주)에서는 체조 이상재(포철중)를 비롯 금4, 은3, 동11개를 합하여 28개의 메달을 차지했다. 제29회 대회(2000, 인천)에서는 포철서초, 포철중 체조가 금메달 10개를 따고, 육상 허설아(대흥초), 태권도 최병주(영신중) 등 금12개, 은3개, 동9개로 총 30개의 메달을 차지하여 포항선수단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제30회 대회(2001, 부산)에서 육상 김재열(대흥초)를 비롯 금5, 은5, 동5개의 성적을 내었다.

제31회 대회(2002, 충남)에서 체조 문동주(포철서초), 한연숙(포철서초), 김재강(오천중)의 금3개, 육상 이강백(대해초)을 비롯 은8개, 태권도 김지나(흥해중)를 비롯 동21개를 획득하여 총 32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32회 대회(2003, 제주)에서는 체조 김효빈(포철중)을 비롯 금11, 여중 축구 항도중을 비롯 은5, 배구 포항동부초를 비롯 동14개를 차지하여 총 29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 33회 대회(2004, 전북)에서는 육상 김재열(대흥중)을 비롯 금3, 역도 정광교(창포중)를 비롯 은13, 체조 포철중을 비롯 동15, 총 31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34회 대회(2005, 제주)에서는 체조 차명지(포철중) 2관왕을 비롯 금8, 수영(대흥중)을 비롯 은8, 카누(대송중)를 비롯 동13개로 총 29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35회 대회(2006, 울산)에서는 사이클 김태훈(대도중) 2관왕을 비롯 금7, 육상 이수환(문덕초)을 비롯 은9, 여자축구(동해초, 항도중)를 비롯 동7, 총 23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36회 대회(2007, 경북)에서는 사이클 김태훈(대도중) 3관왕, 역도 강윤희(환호여중) 3관왕을 비롯 금11, 체조 정재형(포철서초)를 비롯 은8, 역도 최상길(대도중)을 비롯 동9, 총 28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제37회 대회(2008, 광주)에서는 역도 조운호(대도중) 3관왕을 비롯 금8, 수영 김가을(신흥초)을 비롯 은9, 레슬링 오천중 4체급을 비롯하여 동9, 총 26개를 차지였다. 제38회 대회(2009, 전남)에서는 역도 김다혜(환호여중)의 2관왕을 비롯 금4, 축구 포철동초를 비롯 은9, 배구 포항여중을 비롯 동10개로 총 23개의 메달을 차지하였다.

3. 경북도민체육대회와 포항

1) 경북도민체육대회 역사와 개요

도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1962년9월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이 1963년 3월에 공포되어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설정되었고, 국민체위 향상은 민족의 힘이라며, 전국최초로 스포츠제전이 열렸는데 제1회 경북도민체육대회(1963, 대구)로 10개 종목 33개 시군구 5,217명의 임원, 선수가 “맑고, 강하고, 아름답게”란 대회 슬로건 아래 참가하였다. 1964년 극심한 한발로 제2회 대회가 중단되는 등 6차례나 중단됐지만 2009년까지 47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제1회 대회는 시(구)부와 군부 구분 없이 중, 고, 일반부로 나눠 경기가 진행됐고 시상도 통합 실시됐다. 첫 대회에서는 육상, 축구, 배구, 연식정구, 농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재건축조 등 10개 종목이 채점종목으로, 야구, 핸드볼(11인제), 럭비 축구, 펜싱, 필드하키 등 5개 종목이 시범경기로 펼쳐졌다. 전국체전을 본받아 성화를 경주도함산에서 채화하여 55명의 주자에 의해 경기장까지 봉송되었다.

제3회부터는 시(구)부와 군부로 분리됐다. 제5회 때는 입장상이 신설됐고 1972년 제10회 때는 중학부가 폐지되고 현재처럼 고등부와 일반부 경기만 열렸다. 대회기간은 처음에는 3일간이었지만 수시로 4일간 열린 적도 있었다.

1990년 제28회부터는 대회기간이 4일로 고정되었다. 포항시와 예천군은 시(구)부와 군부에서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낳았다.

포항시는 1973~1980년 7연패를 달성하는 등 무려 19차례나 정상에 올랐으며, 구미는 2003~2005년 3연패에 성공하는 등 4차례, 안동시는 1991~1996년 5연패하는 등 6차례 우승했다. 예천군은 분리 첫해인 1965년 제3회를 비롯하여 10차례의 우승을 했으며, 최근에는 3연패를 비롯한 8차례우승을 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1975년 제13회 대회에서 기자단 선정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중단됐고 1997년 부활돼 매년 시상되고 있다.

2) 경북도민체육대회와 개최

포항에서 도민체육대회는 지금까지 4번을 개최하고 5번째 대회를 2010년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도민체육대회는 1974년 5월 18, 19일 양일간 열린 제12회 대회였다. 시민과 체육인, 공무원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성공리에 치른 포항 최초의 도 단위 체육 행사였으며, 향토 체육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지역 체육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대회였다.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하

였으며, 태광산업의 이임용 사장, 코오롱그룹의 이동찬 회장 등 지역 출신 기업인들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힘입은 포항시선수단은 11회 대회에 이어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1987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린 제25회 대회였다. 대구가 광역시로 독립된 후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개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래서 포항과 경주로 종목을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다. 포항에서는 육상, 수영, 축구, 연식정구, 농구, 핸드볼,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양궁, 사격, 태권도 등 16개 종목(경주는 5개 종목)의 예선과 결선을 치루었다. 이 대회에서도 포항은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세 번째는 1990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열린 제28회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포항시 선수단은 5연패를 달성하여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 주었다.

네 번째는 1999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린 제37회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체육행사와 아울러 많은 문화행사가 곁들여져 문화체전의 한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포항의 문화수준을 대외에 과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3)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 1960년대 도민체육대회

1963년 제1회 대회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대구시 5개구 9개팀과 군부 등 33개 팀이 참가하였고, 포항고 농구 3위, 포항여고 배구 3위 성적만 기록되어 있다.

제2회 대회는 극심한 가뭄으로 대회가 중단되었으며, 1965년 제3회 대회부터 시(구),군부 분리하여 성적을 매겼다. 육상에서 남고 10,000m 김억조 3위가 유일한 입상이고, 남일반 축구, 포항여중과 포항여고 정구, 남일 연식 정구, 포항중 탁구 등이 입상하였다.

1966년 제4회 대회는 경주에서 열렸는데 육상 남고 권충길, 성광식 등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입상하였고, 연식정구, 배구, 정구, 농구, 탁구, 검도 등에서 골고루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1967년 5회 대회부터 입상상이 처음 생겼다. 육상에서는 성만식 200m 2관왕, 김차영, 김향자 등이 1위를 하였고, 축구 동지중, 여일 탁구, 태권도 김행복, 김대원, 조만재가 1위에 입상하였다.

1968년 6회 대회는 육상의 김현철, 김차영, 김향자가 100m, 200m, 400mR에 출전하여 1위를 하였고, 동지중 축구, 여일 탁구, 포항수산대 배구 등이 1위로 입상하였다. 1969년 7회 대회는 남일 배구우승 과 포항고 축구, 동지중, 포항수고, 남일반, 장년의 연식정구, 동지상고의 농구, 여일 탁구, 배구 협성공민 등이 입상하였다.

(2) 1970년대 도민체육대회

1972년 제10회 대회부터 국민학교 육상 및 중학부 전체 경기가 폐지되고 고등부 일반부 경기만 가졌다. 1970년대 도민체전에 출전하여 입상한 포항시 고등부 팀을 보면 축구는 동지상고, 배구는 협성공민, 포항수고, 포항고, 포항여고, 실업전문, 농구는 동지상고, 포항고, 포항여고, 핸드볼은 포항중, 포항여중, 포항고, 탁구는 대동중, 포항고, 포항여중, 대동고, 동지여상, 연식정구는 동지중, 동지상고, 정구는 동지여상, 테니스는 포항수고, 동지상고, 동지여상, 배드민턴은 포항수고, 동지여상, 유도는 포항중, 포항고, 동지상고, 씨름은 포항중, 동지상고, 포항고, 검도는 포항고, 동지상고, 대동고, 사격은 포항고 등으로 각급학교의 팀이 현재의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학교운동부 보다는 수준이 낮지만 많은 종목에 선수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포항시는 1973년 제11회 대회 때 처음 우승하였는데 육상 트랙과 마라톤, 배구에서 종목 1위를 하였다. 1977년 제15회 까지 5연패를 하고, 1978년에는 대구에서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개최 관계로 쉬었고, 다음해 개최한 1980년 18회 대회에서도 우승하여 연속 7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3) 1980년대 도민체육대회

1981년 제19회 대회는 처음으로 안동에서 열렸고 안동시가 우승을 하고 포항은 준우승하였다. 1982년 제20회 대회는 경주에서 열렸으며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 성적은 경주시와 동률이었으나 1위 종목이 많은 경주가 차지하고 포항은 준우승하였다.

1983년부터 1990년 제28회 대회까지는 문경, 구미, 포항 등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중 1985년은 포항에서 전국소년체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관계로 개최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포항시가 우승하였다.

(4) 1990년대 도민체육대회

1991년 제29회 대회는 안동시에서 열렸고 홈팀 안동시 1위, 2위는 경산시, 포항시는 3위로 내려앉았고 1992년 제30회 대회는 포항, 경주에서 열렸으며, 가장 많은 선수단을 출전시켰으나 안동, 경산, 경주에 밀려 1972년 이후 최하위 성적인 4위로 밀려났다. 1993년 제31회 대회는 점촌시에서 열렸고 포항시는 준우승에 머물렀다.

1994년 제32회 대회는 영주시에서 열렸고, 종합성적은 안동시가 4연패를 하였고, 포항시는 영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안동시와 부정선수 문제로 폐회식에 참석치 않고 3위 시상을 거부했다.

1995년 제33회 대회는 포항에서 전국체전 개최관계로 개최되지 않았고, 1996년 34회 대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통합시군으로 첫 번째 열린 대회로 안동시가 우승하여 5연패를 달성했고, 구미시 2위, 포항시는 3위를 차지했다. 포항체육회 이사진은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집행부를 다시 구성하였다.

1997년 35회 대회는 경주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경북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대회로 설정, 신라천년의 고도 경주도합산에서 개최된 성화를 독도까지 헬기로 봉송했다. 포항시는 1990년 이후 7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정상탈환을 위해 포항시체육회는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교사들과의 연찬회를 갖고 각 연맹별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등 철치부심한 결과였다.

(5) 2000년대 도민체육대회

2001년 39회 대회는 구미에서 열렸고, 홈팀의 기세로 추격해오는 구미시를 간소한 차로 이겼고, 정상 수성을 위해 전 체육인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 덕분에 무난히 5연패를 달성하였다.

2002년 40회 대회는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관계로 경북지역 전역에 분산개최하고 종합시상을 하지 않았다.

2003년 41회 대회는 영주시에서 열렸고, 도민체전 사상 구미시가 첫 우승을 하여 포항시의 대회 6연패를 저지하고 말았다.

2004년 42회 대회는 경주에서 열렸고, 도민체전 첫 우승으로 탄력을 받은 구미시에 많은 점수차로 패하였고, 구미시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이클과 씨름 종목에서 부진하여 구미시의 추격에 역부족이었다.

2005년 43회 대회는 안동에서 열렸고, 구미시가 3연패를 이루었다. 포항시의 운동부 종목 편협과 대학·일반부 선수의 확보에서 엄연한 차이를 보였다. 구미시는 경운대학에 여러 종목의 체육특기선수들이 재학하여 포항시의 급조한 팀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6년 44회 대회는 전국체전으로 분산하여 열렸고 종합시상은 하지 않았다.

2007년 45회 대회는 상주에서 열렸고 포항시는 와신상담 끝에 종합우승을 되찾았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구미시에 3회 연속 우승을 내준데 대하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우승탈환 의지를 불태워 구미시가 체육회 임원 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기어코 우승을 탈환하였다.

2008년 46회 대회는 영천에서 개최되었고 육상, 핸드볼 등 각 종목의 부정시비와 일부종목의 과열된 경쟁으로 승부 조작 의문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2009년 47회 대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심기일전하여 종합우승을 탈환하였고,

완벽한 우승을 위해 일부종목의 학교운동부 창단 타령 대신 동아리팀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등 정상을 유지하기위한 전략을 세워야겠다.

경북도민체전 역대개최지 및 성적

회수	연도	개최지	시 부			군 부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	1963	대구	남대구	중대구	김천시			
2	1964	극심한 한발로 중지						
3	1965	대구	남대구	중대구	동대구	예천군	문경군	상주군
4	1966	경주	남대구	경주시	포항시	예천군	의성군	문경군
5	1967	대구	남대구	안동시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상주군
6	1968	대구	북대구	안동시	남대구	예천군	의성군	상주군
7	1969	대구	남대구	경주시	안동시	상주군	의성군	예천군
8	1970	대구	남대구	경주시	동대구	상주군	예천군	의성군
9	1971	대구	경주시	남대구	동대구	상주군	예천군	영천군
10	1972	대구	남대구	포항시	경주시	예천군	상주군	의성군
11	1973	대구	포항시	남대구	동대구	상주군	예천군	의성군
12	1974	포항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상주군	예천군	의성군
13	1975	대구	포항시	남대구	안동시	상주군	문경군	경산군
14	1976	대구	포항시	남대구	안동시	경산군	예천군	상주군
15	1977	대구	포항시	안동시	남대구	경산군	상주군	예천군
16	1978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로 중지						
17	1979	대구	포항시	경주시	남대구	경산군	문경군	상주군
18	1980	대구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문경군	상주군	경산군
19	1981	안동	안동시	포항시	김천시	경산군	문경군	상주군
20	1982	경주	경주시	포항시	안동시	경산군	문경군	예천군
21	1983	문경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상주군	문경군	예천군
22	1984	구미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경산군	상주군	문경군
23	1985	제1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로 중지						
24	1986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중지						
25	1987	포항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경산군	예천군	철곡군
26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로 중지						
27	1989	구미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주군	선산군	예천군
28	1990	포항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철곡군	예천군	의성군

회수	연도	개최지	시 부			군 부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29	1991	안동	안동시	경산시	포항시	예천군	칠곡군	경산군
30	1992	경주	안동시	경산시	경주시	경산군	예천군	문경군
31	1993	점촌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군	예천군	칠곡군
32	1994	영주	안동시	영주시	포항시	예천군	경산군	칠곡군
33	1995	제7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중지						
34	1996	상주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예천군	칠곡군	의성군
35	1997	경주	포항시	경산시	경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36	1998	영천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예천군	칠곡군	의성군
37	1999	포항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38	2000	김천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울진군
39	2001	구미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예천군	울진군	칠곡군
40	2002	영천시 외 7개 지역 분산개최 종목별 점수제						
41	2003	영주	구미시	포항시	영주시	칠곡군	울진군	영덕군
42	2004	경주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칠곡군	울진군	영덕군
43	2005	안동	구미시	포항시	안동시	예천군	울진군	칠곡군
44	2006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로 분산 개최						
45	2007	상주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칠곡군	울진군	의성군
46	2008	영천	구미시	포항시	경산시	칠곡군	영덕군	울진군
47	2009	경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4. 경북학생체육대회와 포항

경상북도 학도종합체육대회는 학교 체육교육을 통하여 육성한 학교 스포츠활동의 평가의 장으로 학교 체육교육의 활성화로 경기력 향상과 강인한 체력 및 의지력을 가진 주체성 있는 경북 학도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64년 1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는 고등학생만 참가하여 각 지역별 대항으로 경기를 하였으며, 10, 11회 대회는 학교별 대항전으로 바뀌었으며, 제13회 대회부터는 초·중·고등학교가 참가하는 대회로 크게 확산되어 초·중학교는 시군 대항, 고등학교는 학교 대항으로 진행하였다. 또 제16회 대회부터는 초·중학교는 시군 대항, 고등학교는 시군, 남녀 대항으로 경기방법이 변해 왔다. 2004년도 대회부터 대회명칭이 현재의 경북학생체육대회로 바뀌었다.

경상북도 학생체육대회 개최 및 성적 현황

대회회수	대회기간	대회장소	대회결과			비고	
			1위	2위	3위		
제23회	1986.11.17~18	구미	점촌	안동	구미		
제24회	1987.10.29~31	구미	경주	안동	점촌		
제25회	1988.10.27~29	포항	경주	점촌	안동		
제26회	1989.10.26~27	점촌	점촌	경주	영주		
제27회	1990. 5.10~12	구미	포항	점촌	구미		
제28회	1991. 5. 9~11	포항	포항	경주	점촌		
제29회	1992. 5. 7~ 9	안동	포항	경주	안동		
제30회	1993. 4.22~24	경주	포항	경주	안동		
제31회	1994. 9.28~30	점촌	포항	안동	구미		
제32회	1995.10.25~27	영주	포항	구미	경주		
제33회	1996.10.17~19	상주	포항	구미	안동		
제34회	1997.11. 4~ 6	경주	포항	구미	기천		
제35회	1998.11.12~14	영천	문경	경주	영천		
제36회	1999.10.27~30	포항	문경	경주	안동		
제37회	2000.10.31~11. 3	김천	문경	경주	구미		
제38회	2001.10.30~11. 2	구미	포항	구미	문경		
제39회	2002.11.25~11.29	영천	구미	포항	경주		
제40회	2003.11.11~11.14	영주	구미	포항	경주		
제41회	2004.11. 2~11. 5	경주	시부 군부	포항 의성	구미 칠곡	경주 예천	
제42회	2005.11. 4~11. 7	안동	시부 군부	구미 칠곡	포항 의성	김천 청도	
제43회	2006.11. 7~11.10	영천	시부 군부	포항 칠곡	구미 의성	경주 예천	
제44회	2007.11. 2~11. 5	상주	시부 군부	포항 칠곡	구미 의성	경주 예천	
제45회	2008.11.	영천	시부 군부	포항 칠곡	구미 의성	경산 청도	

1980년 이전에는 지구별 대항이거나 학교별 대항이었기 때문에 포항시의 성적을 따로 알아 볼 의미가 없었다.

경기방법이 시군 대항으로 바뀌고 대구광역시가 분리되어 나간 후인 1986년 23회부터 1989년 26회 대회까지, 1998년 35회 대회부터 2000년 37회 대회까지는 육상종목만 채점하여 종합성적을 집계 하였다. 이는 시세가 크고 학교운동부가 많은 포항시가 우승을 독점하므로 그 개선책으로 시행된 안이었다. 그 기간에는 포항시는 고등부 육상 육성학교가 없어 문경, 구미 등에게 우승을 내주었다.

종합 채점방법에 대해 육상 외 다른 종목에서 불만을 표시하므로 2001년 38회 대회부터는 전체종목을 채점하되 육상을 12개 세부종목으로 집계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나 육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01년도 38회 대회는 포철공고 육상부의 창단으로 종합우승을 되찾았으나, 사정상 1년 만에 해체됨으로써 다시 고등부 육상이 활성화된 구미시에 2년 연속 종합우승을 내어주었다. 두호고등학교가 2004년 창단됨으로서 우승을 다시 되찾았고 그 후 2006년부터 2008년 제45회 대회까지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하였다

5. 포항시민체육대회

체육회의 결성 이후 첫 공식적인 사업으로 1947년 8월 15일 광복 2주년을 맞아 광복을 기념하고 향토 체육발전을 위해 염전을 일구던 곳인 영흥초 건너편 최초 포항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중심으로 한 제1회 남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1955년 11월에 운동장을 착공하여 완공 후 시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1957년 10월 26일 제7회 포항시민대운동회가 포항시체육회 주최로 개최되었다고 하였다.

1996년 통합시는 제1회 포항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최근 2008년 10월 25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제9회 포항시민체육대회가 33개 읍면동을 대표한 선수단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및 종합성적 현황

회수	년도별	동 별		
		우승	준우승	3위
20회	1975	송도동	청림동	상대동
21회	1976	송도동	해도동	동빈동
22회	1977	송도동	해도동	청림동
23회	1978	송도동	죽도1	신흥동
24회	1979	용흥2	우창동	두호동
25회	1980	청림동	송도동	상대동
26회	1981	상대동	청림동	용흥1
27회	1982	상대동	청림동	용흥2
28회	1983	상대동	청림동	용흥2
29회	1984	제14회 전국소년체전준비 관계로 중지		
30회	1985	청림동	죽도2	송도동
31회	1986	청림동	송도동	두호동
32회	1987	제25회 경북도민체전 개최준비 관계로 중지		
33회	198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관계로 중지		
34회	1989	두호동	제철동	대신동
35회	1990	제28회 경북도민체전개최 준비 관계로 중지		
36회	1991	태풍 글래디스 수해로 인해 중지		
37회	1992	효곡동	두호동	청림동
38회	1993	효곡동	제철동	상대1
39회	1994	극심한 한해로 인해 중지		
40회	1995	제76회 전국체전 개최 관계로 중지		
통합 제1회	1996	흥해읍	두호동	효곡동
제2회	1997	두호동	흥해읍	효곡동
제3회	1998	태풍 애니 수해로 인해 중지		
제4회	1999	용흥동	흥해읍	효곡동
제5회	2001	흥해읍	해도2동	용흥동, 두호동
제6회	2004	효곡동	연일읍	대이동
제7회	2005	태풍 나비 수해로 인해 중지		
제8회	2006	효곡동	두호동	연일읍
제9회	2008	용흥동	연일읍	효곡동

6. 하계 올림픽대회(2008, 중국 제29회 베이징대회)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포항 출신이거나 포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선수는 12명으로 정식종목 10명(체조 3명, 유도3명, 레슬링1명, 펜싱 1명, 야구 2명), 시범종목 2명(우슈 2명)이다.

체조에서 포스코건설 소속 선수들인 양태영은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오십으로 동메달에 그쳐 도둑맞았던 금메달 사냥에 다시 나섰다, 유원철도 대표팀 내에서 평행봉의 달인으로 불릴 만큼 기량이 뛰어나 메달이 기대되었다. 또 포철고 출신 김수면(22·한체대)도 도하 아시안게임 남자체조 안마 금메달을 따낸 데 이어 프레올림픽 안마 개인전 은메달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꿈꾸었다.

레슬링에서는 오천고를 졸업한 김재강(21·영남대)은 큰 체구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를 겸비하고 있어 레슬링 중량급 메달을 따서 종합 10위 수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유망주였다.

남자 유도에 출전하는 동지고 출신 김재범(23·한국마사회)은 세계 정상급의 기량을 갖추고 있어 -81kg급에서 유력한 메달 후보로, 여자 유도에 출전하는 포항시청 소속 공지영(23)과 양학초 출신 김경옥(25·하이원)도 메달권 입상이 목표였다. -52kg급에 출전하는 김경옥이 메달에 대한 기대와 -63kg급 공지영도 지난 2005년 코리아오픈 2위에 이어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은메달을 따내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를 모았다.

펜싱의 이신미(24·익산시청)는 연일초 용흥중 육상 높이뛰기 선수 출신으로 경북 체고에 진학하여 펜싱으로 전향 부산아시안게임 사보르 금메달과 도하 아시안게임 사보르 단체 은메달 주역이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메달 이후 8년 만에 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야구에도 포항 출신 선수 2명이 출전하고 있다. 포철공고 출신 권혁(25·삼성)과 강민호(23·롯데)는 각각 투수와 포수로 베이징 올림픽 야구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24명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시범종목으로 치러지는 우슈에 동지고 출신 윤순명(27·부산사상구청)과 오천고 출신 김아리(23·여)가 대표로 출전, 지역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예상 하였다.

대회결과 포철공고 출신 권혁(25·삼성), 강민호(23·롯데)는 각각 투수와 포수로 우승의 주역이 되었고, 비록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남자 유도에 출전한 동지고 출신 김재범(23·한국마사회)은 81kg급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포스코건설 소속 유원철(24)은 평행봉의 달인답게 체조에서 우리나라에 유일한 은메달을 선물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으로 우리나

라의 10-10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는데 주역이 된 것은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이번 올림픽에 출전해 지역민의 위상을 드높인 전 선수들을 위한 환영행사도 하였다. 환영행사는 2008년9월2일 포철공고에서 야구의 권혁, 강민호 선수의 모교에서 이루어졌고, 9월5일 포항체육관에서 유도선수 환영회는 제36회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개회식에 맞춰 열렸다.

향토 출신 김재범(81kg이하, 은메달, 동지고, 마사회)에게 공로패 및 꽃다발 증정, 격려금 전달을 했다. 대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한 유도의 경북출신 금메달리스트 최민호와, 메달리스트 왕기춘 정경미 등도 환영 격려했다.

7. 하계 아시아경기대회(2006, 카타르 제15회 도하대회)

이미 1990년 북경 대회에서 수구종목의 향토출신 박석범, 장시영(이상 포항수고 출신)가 참가하여 동메달을 땀고, 1994년 히로시마대회에서 김순형(대해초 출신)은 1500m 금메달, 800m 은메달을, 2002년 부산대회에서 이신미(연일초 용흥중 출신)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다.

2006년 도하대회에서 종합 2위를 견인한 포항 출신 및 연고선수들의 활약을 보면 포철서, 포철중, 포철고를 나와 한국체대 2년에 재학 중인 남자체조 국가대표 김수면은 금메달 1개(안마)와 동메달 2개(마루운동, 단체)를 한국에 선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유도에 출전한 포항시청 조남석과 이소연이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조남석 이소연 모두 한국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은메달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지만 유도메카 포항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포항스틸러스 소속 오범석은 축구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천금의 중거리 슈트로 바레인을 1대 0으로 격파하며 한국축구의 8강 진출에 일등공신이 됐다. 이외에 펜싱 여자 사브르의 이신미(연일초, 용흥중 출신)는 육상 높이뛰기 선수 출신으로 부산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로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기대를 모았으나 사보르 단체 은메달에 만족하여야 했다. 이번 대회에 야구대표로 참가한 포철공고 출신 강민호(21·롯데 자이언츠 포수)는 고교 시절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다. 2004년 롯데에 지명된 후 줄곧 롯데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올해 주전을 꺾으며 롯데의 간판 포수로 활약하고 있다.

제15회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체조 안마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포철고 출신 김수면 선수 환영식이 2006년12월19일 포스코 교육재단 소강당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대공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포항교육장, 대한체조협회장, 포철교육

재단 초·중·고 교장 등 내외빈과 체조선수,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포스코 교육재단 이사장과 포항교육장은 포스코교육재단과 포항을 빛낸 김수면 선수에게 격려금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이대공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포스코와 포스코 교육재단은 비인기 종목인 체조인구의 저변확대와 세계적인 체조선수 육성을 위해 지난 1983년 체조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 해마다 체조대회를 개최하는 등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대견하다고 강조했다.

8. 체육관련 유공 수상자(도 단위 이상)

1) 경북체육교육상

정종일(동지여상)	이성근(포항고)
박춘강(인덕국)	한익동(포항수고)
정진태(포항고)	김경환(대흥중)
박만도(포항수고)	김성현(대도중)
한도균(대흥초)	

2) 경상북도 문화상(체육부문) : 이선오(1992)

3) 체육 훈·포장 및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정상영(포항시청, 1985)	김주현(포항 교육청, 1985)
김수웅(포항경찰서, 1985)	김기철(동지여상, 1985)
한귀옥(포항국, 1985)	박세갑(포항중, 1985)
김봉옥(청림국, 1985)	배석호(포항여고, 1985)
김부근(포항시청, 1995)	이영식(포항시청, 1995)
황관조(포항시청, 1995)	도재만(포항교육청, 1996)
신병인(포항시청, 1996)	박병모(자동차번호판사업소, 1996)
오성진(포항교육청, 1996)	이종각(포항시청, 1996)
박태욱(동지여중, 1996)	김영석(포항교육청, 2008)

제4절 포항의 체육시설

1. 체육시설 현황

국민경제 수준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시민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의 부족 등으로 여가를 즐기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포항시에 는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과 544개의 체육시설업소가 신고 되어있다.

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종합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체육관		수영장	사격장	국궁장
				구기	생활			
21	1	8	5	2	1	2	1	1

학교 체육시설 현황

구분	운동장		체육관			우레탄		헬스시설
	인조	천연	정규	강당겸용	다목적교실	실외	트랙	
초	1			9	7		1	5
중	3	2	1	10	3	0	1	
고	1		2	7	2		0	
계	5	2	3	26	12		2	5

신고 체육시설 현황

계	종합체육시설	빙상장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업	무도학원
544	1	1	4	139	76	87	224	2	10

2. 포항체육의 나아갈 길

엘리트체육은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핵가족화와 입시중심 교육의 영향으로 체육활동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가 만연해 선수층이 얇아지고, 학교 운동부는 선수수급에 곤란을 겪고 틈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해체가 빈번한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체육은 주

5일 근무의 확산과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에 대한 인식향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개최되는 경북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의 지속인 참여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포항체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의 자립기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포항시는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되어 2007년부터 그 이자 수익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립하기에는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체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우수한 선수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체육기반 시설의 확충과 재정비도 포항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포항시의 체육시설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타 지역에 못지않게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1985년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할 때 완공된 운동장과 체육관, 수영장 등은 현재 시설이 낙후되고 국제규격 맞지 않으며, 편의시설이 미비하다. 체육 시설의 확충과 질적 보안을 통해서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충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 꿈나무인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는 것은 포항 체육의 미래를 기약하는 과제이다. 1990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우리 고장의 학교운동부는 경북 체육의 요람과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국적인 실적도 우수하다. 그러나 학교 체육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것이 체육지도자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그것은 운동부를 희망하는 선수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희망을 하더라도 인기종목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특기적 성부의 선수발굴과 육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정비와 체계적인 육성대책을 교육청과 함께 수립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해마다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초·중·고·일반부 팀의 연계 육성을 통한 전력강화로 선수 발굴 및 우수지도자 확보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여가시간의 증가로 체육을 통한 복지요구가 증대되고 체육행사 기획과 시설관리 등 중장기적인 체육 인프라 구축과 선진 체육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스포츠 마인드를 갖춘 전문가의 배치와 활용이 필요하다.

포항 체육은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각종 전국대회 유치 등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선진 체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08년 7월 10일 한동대에 세워진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제2호 히딩크 드림필드’ 준공식에 거스 히딩크감독이 참석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2009년 착공하여 2011년에 완공 예정인 포항야구장은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해 새로운 스포츠 문화를 선보여야 하겠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2010년 포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천혜의 해양도시 포항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또 매년 개최되는 포항해변마라톤대회는 수많은 마라톤 마니아로부터 환상의 코스로 찬사를 받고 있으므로, 대회와 양과 질을 높여 포항시민 축제의 한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2009년에는 체육인들의 꿈인 체육회관이 마련되어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곧 입주하므로 이를 체육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포항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영일군,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포항시, 1999.
영일중학교, 《해맞이50년사》, 2001.
경상북도체육회, 《경북체육사》, 2005.
김천시체육회, 《김천체육50년사》, 2006.
연일초등학교, 《연일초등학교 100년사》, 삼양문화사, 2008.
흥해초등학교, 《흥해초등학교 100년사》, 삼우에드컴, 2008.
동지교육재단, 《동지60년사》, 공단인쇄소, 2009.
포항여자고등학교, 《연원70년사》, 삼양문화사, 2009.
포항시·포항교육청, 포항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현황, 체육회현황, 각종자료》